Life p/14

편한 신발 찾는 소비자 급증

metro

메트로 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제3071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8

한국 밴드 전설 준전 모인다

주춤하던 통신시장 활기 되찾나

잇단 스마트폰 출시로 신규가입자 확보 겨냥 지원금 경쟁 예상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
애플은 아이폰6 플러스
구글 넥서스6 출시채비
LG전자 아카 내달 판매

삼성전자와 LG전자·애플·구글 등이 스마트폰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지원금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야심작으로 갤럭시 노트4를 내놓은 가운데 애플이 이달 31일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를, 구글은 내달 안드로이드 최신버전 넥서스6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LG전자도 새로운 콘셉트의 스마트폰 아카의 출시 일정을 다음달로 확정했다.

이에 통신사들은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주판알을 빠르게 튕기고 있으며, 국내 제조사들은 아이폰 확산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이통사 지원금에 포함되는 장려금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지원금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24개월 약정, 월 9만원대 요금제 가입시 최대 18만원 지급되고 있는 갤럭시 노트4 지원금이 아이폰6, 넥서스6 등의 출시에 맞춰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법정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갤럭시 노트4의 지원금이 10만원 가량 늘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갤럭시노트4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삼성전자가 최신 단말기 대응에 나서면서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조사 측과 단말기 지원금에 대해 협의된 내용은 없지만 경쟁 제품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마케팅 비용을 지원 할 것"이라며 "외산 단말기 판매 시기에 맞춰 지원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애플의 신제품이 시판되는 시점을 두고 변화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국내 이통사가 오는 24일부터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의 예약판매를 시작하겠다고 공지했지만 벌써부터 일부 대리점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예약을 받고 있다.

애플의 최신 단말기가 공식적으로 시판될 경우 스마트폰 시장은 더욱 빠르게 변할 것이다. 여기에 LG유플러스가 애플 아이폰을 처음 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원금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 대리점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인해 매장방문 고객 대부분 애플 신제품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며 "벌써 아이폰6 예약가입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신 단말기(갤럭시노트4)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단말기 제품 물량 부족과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저가형 제품이 인기"라며 "제조사들의 경쟁과 LG유플러스까지 아이폰 판매에 나서면서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통신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말 국내 시판되는 애플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 출고가는 각각 80만원, 100만원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통신사가 가입자 경쟁을 위해 법정 상한액인 30만원의 지원금을 쏟아 붓는다면 아이폰6는 50만원 대에 구입할 수 있다.

/황성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월드 IT 쇼 현장 방문한 박 대통령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4 ITU 전권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월드 IT 쇼 전시관을 방문, KT 전시장에서 황창규 KT 회장(박 대통령의 오른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관련기사 [illegible]> /연합뉴스

"절대평가 수능 전체로 확대해야"

영어 절대평가 첫 공청회

교육부가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에서 절대평가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영어영역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수능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20일 서울 중구 평가원에서 열린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맡은 중앙대 강태중 교수는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강 교수는 "수능은 학교 교육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교과 학습 수준을 드러내는 데 뒤어지 수험생들의 상대적인 우열을 세밀하게 가르는 데 뒤서는 안 된다"며 "수능을 절대평가 양식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이 점에서 합당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듯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은 독자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며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이나 사교육이 다른 영역으로 옮겨갈 가능성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보완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다혜기자 [illegible]

에볼라 보건인력 선발대 내달 파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인력 파견 관계부처협의회에서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참석자들이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에볼라 바이러스 게릴지역에 다음달 초 보건인력 지원문제와 관련한 선발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뉴시스

누구나의 이야기 '미생'

거지 수첩
김학철
<연예스포츠부 기자>

지난주 드라마 '미생'이 첫 방송되며 시청자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미생'은 윤태호 작가의 웹툰 '미생'을 원작으로 한다. 연재 당시 직장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샐러리맨의 교과서'로 불리며 흥행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 17일 첫 방송한 이 드라마는 공교롭게도 기업들의 하반기 공개채용 시즌과 맞물렸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신입사원 장그래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속시원한 대리만족보다는 '그토록 원하는 곳이 저런 곳인가' 서슬퍼런 현실에 놀랐을 것이다.

최근 음악, 영화, 드라마 등 대중 문화 전반에 걸쳐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언젠가는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한 번쯤 겪어봤던 이야기가 대중을 열광케 하는 것이다.

미생 의 연기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신입사원 시절 복사기 하나 다루지 못했던 어리숙함과 "안녕하십니까"를 연발했던 각 잡힌 태도는 장그래와 동기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오상식 과장은 열근하게 취해 퇴근길 치킨 한 마리를 사들고 집에 온다. 오 과장은 자고 있던 어린 자녀들에게 달려 들어 치킨 자랑을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아빠가 달갑지 않다. 없는 살림에서도 취업한 아들을 위해 신상 양복 한 벌을 현금 뭉치를 건네며 산 엄마의 모습도 유쾌한 모습이 아니다. 씁쓸함이 현실이고 그 맛에 감동이 전해진다.

다소 억지스러운 연출도 있었지만 드라마 '미생'은 출발이 좋다. 원작과 다른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잔잔한 감동에 시청자들이 반응하고 있다. 케이블 채널에서의 드라마 대작을 한 번 더 기대해 본다.

"최근 안보 상황 고려 합참의장 방미 취소"

● 한국과 미국이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대면 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던 제39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23일(한국시간) 화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군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함께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최윤희 합참의장의 미국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4박5일 일정 베트남 방문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베트남 쯔엉 떤 상 국가주석의 공식 초청을 받아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쯔엉 떤 상 주석과 만나 경제, 문화 교류 확대를 포함한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청계천 유지비 5년간 381억… 수질 '미달'

● 최근 5년간 청계천 유지 보수에 총 381억원이 투입됐지만 수질 개선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청계천 유지보수에 매년 약 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청계천 수질 측정 결과를 보면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2050년>

"통일 한국 GDP 7만달러"

통준위 첫 공개 세미나
G20 중 2위 기록 전망

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만 달러에 달하고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2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통일준비위원회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 대박 가능하다'를 주제로 개최한 첫 공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병연 경제분과 전문위원은 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GDP 추정치로 7만3747달러(남한 8만2421 달러, 북한 5만739 달러)를 연간 성장률로 4.51%(남한 2.63%, 북한 9.556%)를 제시했다.

통일 한국의 1인당 GDP는 ▲2015년 1만7452 달러(남한 2만5896 달러, 북한 753 달러)에서 ▲2030년 3만2760 달러(남한 4만6671 달러, 북한 5589 달러) ▲2040년 4만8927 달러(남한 6만3547 달러, 북한 2만715 달러) ▲2045년 6만 달러(남한 7만2371 달러, 북한 3만6374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일한국 1인당 GDP 전망
출처: 통일준비위원회

환율절상 효과를 감안해 G20 국가들과 1인당 GDP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통일 한국의 GDP는 2030년 11위(3만5718 달러)이지만 2050년에는 미국(9만4264 달러)에 이어 2위(8만3808 달러)를 기록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통일한국의 경제 규모(환율절상 효과 포함)를 추정하더라도 2011년 남한은 G20 국가 내에서 15위(1조116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통일 이후 한반도의 경제 규모는 2030년 11위(2조8180억 달러), 2050년 8위(6조5460억 달러)로 뛰었다.

/조현정기자 hj@metroseoul.co.kr

여야 공방으로 지연되는 서울경찰청 국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일 국정감사에서 여번 국감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정부의 사이버사찰 논란 취재계약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져 국감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2시 국감이 예정되었던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장. /연합뉴스

"北, 우리 GP 조준사격은 도발 행위"

국방부 "정전협정 위반… 엄중 경고"

국방부는 경기도 파주 지역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으로 접근한 북한군을 퇴각시키는 과정에서 19일 발생한 총격전 당시 북한군이 우리 GP(비무장지대 내 소초)를 향해 조준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우리 군이 MDL로 접근한 북한군을 향해 경고 사격 할 때 탄환이 MDL을 넘어가지 않고 (MDL 이남) 우리 측 지역에 떨어지도록 했다"며 "그러나 북한군은 우리측 GP에 사격을 했으며 GP까지 날아온 것은 (북한군이) 조준 사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군의 이런 행위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군이 주말에 MDL 선상에서 계속 도발적 행위를 한 의도에 대해서는 "MDL 상의 푯말이나 표시물의 변화나 유지를 확인하는 정찰 활동이거나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 등에 대비해 우리 측에 도발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명분 쌓기용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군은 전 전선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조성시키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아베 외교책사' 야치 오늘 방한

김관진 실장 만나 안보 협력 방안 등 논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로 알려진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21일 한국을 방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을 한다.

청와대는 20일 "야치 국장이 21~22일 방한해 김관진 실장과 면담을 할 계획"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 정세 등 전략적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양국간 외교 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의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을 정식 출범시킨 바 있으며 초대 국장으로 야치 전 외무차관을 임명했다.

야치 국장은 이날 김 실장과의 면담에서 일본의 안보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과 안보 현안에 관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최근 발표한 중간 보고서 내용이 면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현정기자

보행자 지면과 같은 높이의 환풍구 성남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희생자의 합동분향소가 열린 2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역 출구 앞에서 보행자 지면과 같은 높이로 설치된 환풍구 위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유족 이데일리·경기과기원 보상 합의

장례비 2500만원 + 배상금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발생 나흘째인 20일 숨진 희생자 16명의 유가족 협의체와 (주)이데일리·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장례비 지급은 판례에 준한 기준에 따르기로 하는 등 보상 문제에 합의했다.

이재명(성남시장) 사고 대책본부 공동본부장과 한재창(41·희생자 윤철씨의 매형) 유가족협의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사고 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배상금은 통상적인 판례 기준에 따르기로 하고 장례비용은 희생자 1인당 25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나흘째인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락사고로 숨진 희생자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배상금액은 희생자의 급여수준 등이 각각 달라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기준과 시기는 정하고 나중에 그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배상 주체는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으로 정했으며 추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등 다른 기관의 과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포함하기로 했다.

장례 비용은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이 1주일 내에 희생자 1인당 2500만원을 지급하되 이데일리가 우선 지불한 뒤 향후 경기과기원과 분담 비율을 정해 정산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 이재명 사고 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은 "배상 주체와 부담 비율을 언제,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며 "유족이 결단을 내려 사고 발생 57시간 만인 20일 새벽 3시 20분 극적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차현주기자 cyc@metroseoul.co.kr

"제2 판교 참사 막아라"

서울시, 환풍구 실태 조사→관리지침 신설

최근 성남 판교에서 환풍구 추락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환풍구 설치 실태를 일제조사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1~9호선의 환풍구는 모두 2418곳에 이르며 보도 위에 설치된 곳은 1777곳이다.

보도 위에 설치된 환풍구 가운데 지상 높이가 30㎝ 이상인 곳은 1578곳, 30㎝ 미만인 곳은 199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도로철도 설계 기준은 환풍구 위로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것을 고려해 환풍구 덮개를 1㎡당 350~500㎏까지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말했다.

시는 그러면서도 아파트 등 개인 주택이나 상가 환풍구는 서울시 자원에서 그 수를 집계하거나 안전 관리를 하고 있진 못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시는 이번 주까지 관련 부서, 자치구, 안전 전문가와 함께 시내 환풍구를 일제히 조사하고 관리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윤다혜기자 yd@

<재력가 청부살해 혐의>

김형식 시의원 국민참여재판 시작

검찰 "교사죄는 범죄 실행자 진술이 증거"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배심원 12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지기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가 명백하다며 김 의원과 팽씨가 대포폰과 공중전화로만 연락한 사실 등을 증거로 내세웠다.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교사죄는 실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누군가 자신에게 범행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통해 밝혀낼 수 있다"며 "진술 증거가 바로 직접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팽씨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를 분명히 밝혔으며 이런 진술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윤다혜기자

제2롯데월드 부근 항공소음 민원 급증

국내 최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 주변을 지나는 군용기들이 주택가 상공을 저공비행하면서 소음과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송파구청과 송파구의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가락동·문정동, 송파동, 방이동, 오금동, 풍납동 등 제2롯데월드 동편에 있는 대부분 지역에서 항공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이 지역은 서의 항공소음 민원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하루에도 많으면 10여 건씩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송파구의회 이혜숙(62) 새누리당 의원은 "제2롯데월드를 피해 'C'나 'S'자 경로를 그리기 때문에 군용기들이 일시적으로 고도와 속도를 낮춘 상태로 도심 상공에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다혜기자

"혁신을 혁신하는 것, 바로 나의 일"

사람이야기

■ 이정렬 반도건설 기술본부 상무

기술자 고집 꺾고 평면 다시 그리기 수십 번
입주민 알아주니 마음 고생 한순간에 눈녹듯

분양시장이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지금 분양에서 돈 못 벌면 바보라는 얘기까지 공공연히 나도는 상황이다. 하지만 분양하는 모든 단지마다 흥행을 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이 기록을 너무 쉽게 세운 건설사가 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7위의 반도건설이 바로 그 회사다. 동탄신도시에서는 '래미안'보다 '반도유보라'가 더 유명하다는 한때의 우스갯소리가 이제 더 이상 웃기지 않을 정도다.

◆벌어 열파출 전쟁 불지핀 일등공신

반도건설은 올 들어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를 비롯해 평택 소사벌지구, 세종시, 대구 국가산업단지, 경남 양산신도시 등에서 숨 가쁜 분양릴레이를 이어왔다. 결과는 전 주택형 순위 내 마감,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

이러한 '반도 유보라' 아파트의 성공 랠리의 중심에는 기술본부의 이정렬 상무가 있다. 반도건설 연타석 흥행의 비결인 혁신평면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그이기 때문이다.

이정렬 상무는 "처음부터 대단한 평면을 그려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은 아니다"며 "2011년 김포한강 동시분양을 앞두고 침체된 분양시장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할지 구성원 다 같이 고민하던 중 혁신평면이란 게 나오게 됐다"고 겸손해했다.

당시 이 상무가 내놓은 25평형 4.5베이 평면은 3년이 흐른 지금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잘 빠진 작품이다. 33평형 아파트에 4베이가 요즘 들어서야 일반화된 것과 비교할 때 2011년 25평형 4.5베이는 생각조차 하기 힘든 평면이었던 셈이다.

이 상무는 "실사용 면적은 최대화해보자는 생각에 이런저런 시도를 했는데 평면을 그려 회장님께 보여줄 때마다 다시 만들어 오라는 면박만 당했다"며 "기술사의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수십, 수백번을 다시 그린 결과 나온 게 바로 25평형 4.5베이 평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사 입장에서는 4.5베이 평면을 적용할 경우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줄어 수익성도 낮아지게 되지만 당시 김포한강신도시가 워낙 침체돼 있던 터라 팔리는 상품을 만드는 게 우선이었다"며 "승부수를 던진 게 결국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반도건설이 분양한 '반도유보라2차'는 미분양 우려으로 불리던 김포한강에서 조기 완판을 기록한 것은 물론, 유일하게 프리미엄까지 붙었다. 고무적인 결과에 모 대형건설사 회장이 임원들을 대동해 모델하우스를 찾아 이 평면을 둘러보기도 했다.

◆한 달 3~4번은 다른 모델하우스 찾아

이 같은 김포한강 '반도유보라2차'의 성공은 건설사들의 평면 전쟁에 불을 지폈다. 서비스면적을 최대화해 덤덤아 실사용 면적까지 넓힐 수 있는 '베이' 개발이 가속화됐고, 넓어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파룸과 베타룸이 잇달아 소개됐다.

이 상무는 "혁신평면을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혁신평면이란 허투루 쓰이는 공간이 없는 상태"라며 "같은 크기의 집이라도 쓸모없는 복도에 붙박이장을 넣거나 가변형 벽체를 넣어 공간을 트는 식의 방법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의 손을 거친 설계를 통해 반도건설은 혁신평면의 아이콘으로 우뚝 서게 됐다. 평면에서만큼은 굴지의 대형사 못지않은 명성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도 계속 혁신에 혁신을 더한 업그레이드된 평면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이 상무는 특히 사회 트렌드에 따라 설계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부장적 분위기가 강했던 시절에는 안방은 크고 거실은 작았다. 그러다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로 바뀌면서 각 방의 크기는 줄이되 거실과 가족실은 커지는 추세다.

그는 "집은 살아 있는 유기체로 끊임없이 바뀌기 마련이고, 설계를 하는 사람이 이를 꾸준히 좇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 달에 3~4번씩 다른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면서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집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포 반도유보라2차 주민들이 아파트를 잘 만들어줘 고맙다며 감사패를 전달했을 때 큰 감동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장인 정신이 깃든 평면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박선옥기자 pso5820@metroseoul.co.kr

KT스카이라이프 '비전 3.0 선포식'

"넘버1 컨버전스 미디어 기업이 되겠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일 상암동 본사에서 '비전 3.0 선포식'을 열고 중장기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이날 '넘버1 컨버전스 미디어 기업'을 새 비전으로 정하고 ▲1등 KT스카이라이프 ▲싱글 KT ▲고객 최우선 ▲정도 경영 등을 핵심 가치로 꼽았다.

이날 선포식에는 KT그룹 관계자와 KT스카이라이프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해 그룹 상생과 지속성장,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비전 체계 등을 공유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의지를 굳혔다.

핵심 가치는 고품격 콘텐츠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창조적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의 선택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 아래 정해졌다.

특히 KT그룹의 핵심 미디어 사업자로서 싱글 KT의 가치 아래 정도 경영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KT스카이라이프는 전국 단위의 위성 초고화질(UHD)방송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 융합기술을 개발해 '기가토피아'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남기 사장은 "고객 만족 최우선와 서비스와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사업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철저하게 정신 무장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20일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열린 '비전 3.0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제공

英해상보험 안전평가 2회 연속 'A'

3분기 영업이익 1815억원

삼성중공업이 영국 해상보험업계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조선소라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해상보험조합 JHC(Joint Hull Committee)가 실시한 조선소 위험관리평가에서 업계 최초로 2회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취득한 조선소는 삼성중공업과 독일의 마이어 베르프트 등 3곳이며 2회 연속 A등급 획득은 삼성중공업이 처음이다.

JHC는 영국 해상보험회사들이 1910년에 설립한 이래 10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전세계 보험업계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조선소 위험관리평가는 ▲비상사태대응 ▲화재진압능력 ▲안전규정과 절차 등 13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SAMSUNG 삼성중공업

한편 삼성중공업은 20일 공시를 통해 3분기 매출액 3조2635억원, 영업이익 1815억원(이익률 5.6%), 당기순이익 17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경영실적이 정상화되면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도 813억원 흑자로 전환됐다"며 "특히 누적 세전이익은 1442억원으로 당초 공시한 연간 목표 2000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토윤기자 adkim@

metro Russia

Пончик любит, когда его чешут

metro Brazil

Por segurança, 4(táxis já aceitam c

"강도 무서워 카드 단말기 단다"

브라질 산투스시에서 치안 상의 이유로 택시 요금의 카드 계산 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산투스시 택시 연합에 따르면 택시 요금 지불 10번 중 카드 계산이 전체 지불 방법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전체 택시 수 1670대 중 668대는 이미 카드 단말기를 차량에 설치했다. 산투스시 택시 연합회장은 "강도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택시 안에 현금을 보유하려 하지 않는다. 전자 지불 시스템이 가장 안전하다"고 전했다.

metro Franca

Trestbienmerci.fr, un site 3 en 1 pour être en forme

식사·운동법 챙겨주는 사이트 인기

프랑스에서 운동과 식사법을 알려주는 건강 사이트 트레비앙메르시(trestbienmerci.fr)가 인기다. 이 사이트는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요리 레시피 그리고 운동법을 제공한다. 월정액으로 59 유로(약 7만4000원) 혹은 163 유로(약 22만2000원)를 결제하면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자신에게 맞는 식이요법을 찾을 수 있는 상담이 진행되고 보름에 한 번 전화로 건강 상담을 받는다. 스마트폰을 통해 매일 건강 체크도 가능하다.

14kg '뚱보 고양이' 다이어트 진땀

헉헉거려도 매일 1층까지 주인을 배웅 · 사료 양 줄이자 '간절한 눈빛'

러시아의 뚱보 고양이가 다이어트를 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스베틀라나 마슬렌니코바는 고양이 '폰치크'를 키운다. 폰치크는 올해 열 두 살로 체중은 14kg이다. 몸집은 크지만 성격은 온순하고 애교도 많다.

마슬렌니코바는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면 폰치크가 강아지처럼 졸졸 뒤를 따른다"며 "폰치크를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몸이 무거운 폰치크는 주인 아주머니의 뒤를 따라 아파트 1층까지밖에 갈 수 없다. 매일 아침 숨을 헉헉거리며 따라오는 폰치크를 마슬렌니코바는 다시 집까지 데려다 준다. 마슬렌니코바는 "벌써 몇 년 째 아침마다 폰치크를 1층에서 다시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이 일이 전혀 귀찮지 않다"고 밝혔다.

폰치크는 조금도 비만을 탈출하기 위해 현재 다이어트 중이다. 마슬렌니코바는 "정해진 시간에 정량의 사료만을 먹인다"며 "식사 시간마다 폰치크는 밥을 더 달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사랑하는 폰치크와 건강을 위해 이 때만큼은 단호해진다"고 했다. 그는 이어 "폰치크에게 따로 운동을 시키지는 않는다"며 "조금만 걸어도 호흡곤란 증상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마슬렌니코바는 요즘 비만으로 우울증이 생긴 폰치크가 걱정이다. 그는 "폰치크가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다. 하루 종일 서의 움직이지 않고 웅크리고 있다"며 "매우 화가 날 때 이외에는 거의 울음소리도 내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수의사 따찌야나 아나톨리예브나는 이에 대해 "폰치크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비만 상태"라며 "폐와 위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나톨리예브나는 "전 세계적으로 비만 고양이가 느는 추세"라며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폰치크의 다이어트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고양이는 호주에 사는 21.3kg의 '히미야'였다. 히미야는 비만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발가 슬기로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etro Hongkong

신성한 도교 성지가 쓰레기 산으로 변해

중국의 유명 성지가 '쓰레기 산'으로 변했다.

해난성의 도교 성지인 삼청궁(上清宮)은 망산 취은봉에 자리잡고 있다. 삼청궁 덕분에 잘 알려진 삼청궁 삼림공원은 도교문화지구이자 생태지구로 2011년 위안시가 국가삼림도시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현재는 관리 소홀로 쓰레기 산으로 변해 버렸다.

주민들의 생활 오수가 이곳으로 모여드는가 하면 각종 쓰레기, 건축폐기물, 어기저기 널려있어 악취가 진동한다. 삼청궁삼림공원으로 들어서면 멀리서도 하수구 냄새가 난다. 원래 사람과 차가 다니던 시멘트길은 오수로 막혀있다.

길을 지나면 오랜 시간 구정물에 잠겨 썩은 나무가 쓰러지면서 만들어진 구덩이가 여기저기 있고, 이 일대 숲의 나무는 모두 오수에 잠겨있다. 물줄기는 따로 도랑이 없어 사방으로 흐른다.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오수가 거대한 '호수'를 형성하고 있다. 온통 이끼로 뒤덮여 있는 물 웅덩이 안은 비닐봉투와 같은 생활쓰레기가 가득하다. 이곳으로 흘러드는 수백 미터의 물줄기 주변의 수많은 나무는 모두 나뭇잎이 하나도 없고 가지는 다 마른 상태다.

인근 주민은 "삼청궁 삼림공원 개발 이전에 지역 주민들이 생활 용수를 이 곳에 배출했지만 나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삼림공원 건설 후 설치한 배수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 오수가 공원으로 흘러 들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0일>

코스피	1930.01 (+21.40)	코스닥	558.01 (+8.31)
금리	2.24 (+0.01)	환율	1060.00 (-5.50)

미스코리아처럼 예뻐지는 휴롬주스 20일 서울 종로구 종로동 휴롬 주스카페 광화문점에서 2014 미스코리아 선발자들이 휴롬의 클렌즈주스(500㎖×5개 1세트) 등 신제품 뷔페 휴롬주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눈치보다 병 키우는 직장인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몸이 아파도 출근을 강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는 병세 악화로 결국 근무 중 병원에 실려갔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20일 직장인 1892명을 대상으로 '아파도 참고 출근한 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2%가 '있다'고 답했다.

아파도 출근한 이유 1위는 '상사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47.6%, 복수 응답)였다.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조퇴 또는 반차를 사용한 직장인 비율은 15.3%에 그쳤다. 통증을 참고 정상근무한 직장인의 19.3%는 상태가 안 좋아 결국 병원에 실려가야 했다. 응답자의 82.3%는 '아플 경우 하루 쉬고 싶다'고 밝혔다.

/윤정원기자 unique@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문화회관 2층)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 표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 도 표
광고문의	02)721-9858 3
독자센터	02)721-9851

2002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 아 00058

ICT 올림픽 'ITU 전권회의' 개막

3주간 미래 정책방향 등 설정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수요 현안과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2014 ITU 전권회의'가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막이 올랐다.

ITU 전권회의는 미국, 중국, 이탈리아, 폴란드 등 140여명의 장·차관 및 170여개 국에서 정부대표단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달 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이번 ITU 전권회의에선 세계 ICT 현안과 미래 정책방향 설정, ITU 재정·전략 계획 수립, 고위선출직 선거 등이 이뤄진다.

주요 의제는 ▲인터넷 공공정책에 대한 ITU의 역할과 사이버보안 등 인터넷 신뢰 구축 ▲여성·아동 등 소외 계층의 정보통신접근과 활용도 제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실시간 항공기 위치추적을 위한 주파수 분배 등이다.

이날 개회식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등의 인사말과 하마둔 투레 ITU 사무총장의 개회 선포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개회식 기념연설에서 "ITU가 전기통신 국제표준 제정, 주파수와 위성 궤도 관리는 물론 모든 인류가 전기통신과 ICT의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노력함으로써 193개 회원국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내년 창설 150주년을 맞는 ITU가 전기통신과 ICT 발전, 국가 간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연결 디지털 혁명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카, 스마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융합서비스 출현으로 지구촌의 생활방식이 바뀌고 경제 생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한 국가·지역 간 정보통신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환영사에서 "이번 전권회의에서 최신 ICT 기술 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동시에 ICT의 혜택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개도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ICT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ITU 차원의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ICT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새 개발 의제를 수립하고, 새로운 기후변화 협정을 위해 다같이 노력 중인 현 시점에서 전 세계 모두를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ICT 기술을 활용하는 데 협력을 지속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전권회의는 이날 개회식에 이어 오후 1차 본회의를 열고 민원기 의장 예정자를 전권회의 의장으로 공식 추대한다. 이후 한국 수석대표인 최양희 장관의 정책연설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23일까지 각국 수석대표의 정책연설을 듣는다.

23일과 24일에는 사무총장을 비롯한 ITU 고위직 선거가 진행된다. 우리나라가 출마한 표준화총국장 선거는 24일 진행된다.

2주차에는 ITU의 48개 이사국 선거 및 전파규칙위원회 위원 선거가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1989년 이사국 첫 진출 이후 이번 전권회의에서 7선 이사국에 도전한다.

마지막 3주차에는 국내 최대의 과학축제인 '대한민국 과학창의 축전'이 진행되며 11월 7일 폐회식을 끝으로 전권회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전권회의 기간 '월드IT쇼 2014', '5G 글로벌 서밋', '빅데이터 월드 컨벤션', '글로벌 ICT 프리미엄 포럼', '클라우드 엑스포' 등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20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개회식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제공 /LG전자 제공

삼성·LG전자, 월드IT쇼에서 '첨단' 선봬

5G기술·모바일기기·차세대TV 등 전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월드IT쇼(WIS) 2014'에 참가해 첨단 제품과 차세대 기술을 대거 선보였다. 양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와 함께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전자업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전시가 ITU 전권회의와 연계된 만큼 양사는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5G 네트워크가 이끄는 혁신적인 미래가 시작되는 곳'이란 주제로 전시관을 마련했다. 5G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UHD 영상을 대형 TV에 전송하는 시연을 벌였으며 세계 최초로 이동 중 5G 기술 시연에 성공한 결과도 공유했다.

또 TV 부스에서는 105인치 벤더블 UHD TV와 함께 커브드 TV-사운드바로 구성된 '토탈 커브드 솔루션' 등 다양한 오디오·비디오 제품을 전시했다. 모바일 전시공간에서는 '갤럭시 노트4', '갤럭시 노트 엣지', '기어S', '기어 VR' 등 혁신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를 선보였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전략 제품을 내세웠다. 5G 분야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울트라HD급 영상 전송, 커넥티드카 서비스 등을 통해 5G 비전을 공개했다. LG전자는 5G 비전을 '필요자원 완벽접속', '오감기반 콘텐츠', '실시간 상황인지', '가상-증강 현실'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미래의 통신기술과 활용 사례를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관 입구에는 77인치 울트라 올레드TV 5대를 나란히 연결해 관람객들에게 TV 기술을 선보였다. 또 간편하게 인터넷 등에 연결할 수 있는 '웹OS 탑재 스마트+ TV'를 선보였다. 영화관 스크린과 비슷한 21:9 화면비를 적용해 영화 감상, 게임 등 각종 와이드 영상 시청에 좋은 곡면 모니터, 일체형PC 등 다양한 시네뷰 라인업도 전시했다.

/송혜민기자 Hcurna@

부담스럽다 vs 흥미롭다

블라인드 면접 인식 엇갈려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취업준비생과 인사담당자의 인식이 극과 극으로 나타났다.

20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구직자 501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오히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부담스럽다'(45.1%)가 1위를 차지했다.

'스펙으로 평가받지 않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41.9%), '그동안 쌓아온 스펙이 아쉬워진다'(9.4%) 등이 뒤를 이었다.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신뢰도 낮았다. 취업준비생 중 블라인드 면접을 신뢰한다는 의견은 10%에 그쳤다. 반면 '최소한의 스펙은 볼 것 같다'(57.9%), '실제로는 스펙으로 거를 것 같다'(30.3%)와 같은 불신의 대답은 무려 88.2%에 달했다.

반면 인사담당자들은 대체로 블라인드 면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사담당자 172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 묻은 조사에서 '스펙 위주가 아닌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어 흥미롭다'는 답변이 45.3%로 가장 많았다. 블라인드 면접의 전망에 대해서도 51.2%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국명기자 km@

HNT 하나투어
H Wedding
그래서! 그남자가 선택한 결혼준비
하나투어
결혼 대박람회
Marry me?
찾아 오는길
하나투어 결혼 대박람회
일시 2014년 11월 15일(토요일)~11월 16일(일요일)
장소 호림아트센터(압구정 로데오역 도보 5분거리)
시간 : 오전 10:00~오후 7:00
상담문의 02)2127-1234

'배당시대 증권투자신탁' 판매

자산의 90% 이상 투자

대신증권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배당주와 가치주를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를 통해 자본 배당 소득을 추구하는 '대신 배당시대 증권자투자신탁'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대신 실버연금 배당주식 증권모투자신탁'에 자산의 90% 이상을 투자하는 모자펀드 형태의 상품이다.

이 상품은 안정적인 배당소득에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저평가된 고배당주에 집중 투자한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우량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들로 선별한다.

거시적 분석보다는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트렌드 변화를 미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용한다.

기업탐방과 계량적인 분석을 토대로 투자의사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가입하려면 대신증권 또는 HMC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연간 총 신탁보수는 0.667%~1.567%이다. 가입 후 90일 이내 해지할 경우 이익금의 30%~70%를 환매수수료로 부과한다. /김현정기자

손보사 틈새시장 공략

운전자보험·레저·자전거·반려동물 등 상품 속속 출시

손해보험업계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색상품들을 속속 출시해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6월 자동차 운전사고와 레저활동 사고를 동시에 보장하는 '롯데 안전동행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상해사망 ▲후유장해 ▲입원·수술비 등 운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지 않을 때에 발생한 교통사고도 보장한다.

특히 이 보험은 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한다.

세부 보장 내용은 ▲자전거 탑승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골프중상해사망·후유장해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홀인원(실손) ▲알바트로스(실손) 등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레저활동의 인구 증가에 따라 운전자보험과 여의활동에 따른 상해보험을 결합한 것.

손보사들은 또 자전거보험, 반려동물보험 등 잇따라 이색상품을 출시했다.

자전거도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충되고 자전거 인구가 증가하자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보사들은 자전거 보험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이 보험의 경우 자전거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와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자전거로부터 상해를 입었을 때 등을 보장해주며 지자체가 시·군민을 위해 단체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화재와 롯데손보 등은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보험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손보사들이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출시한 상품이다.

삼성화재는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2'을 통해 상해·질병치료비 손해에 대해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보상하고 있다.

롯데손보의 '롯데 마이 펫 보험'은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날씨 변동에 따라 매출에 위험을 받는 업체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수형 날씨보험도 내년 선보일 예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색 보험의 경우 소비자 인식 부족과 과다 마케팅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업계 입장에서도 위험부담이 크다"면서도 "업계들이 최근 몇 년간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KB카드, 신입 사원 공개 채용

28일 접수 마감

KB국민카드는 20일 하반기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채용은 일반직무와 IT직무 2개 부문으로 모두 5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

일반직무는 학력, 성적, 나이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IT직무는 전산 관련 전공자로서 IT 관련 전문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해 채용한다.

이사 지원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28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카드업에 적합한 인성과 역량을 갖추고 윤리적 가치관이 정립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며 "이번 채용을 통해 고객 지향적이며 조직융화적 인성을 보유한 핵심 인재를 적극 채용할 것"이라 말했다.

/채대윤기자

서민금융 실천 우수사례 시상 김형조 신한은행 부행장(왼쪽에서 두번째)과 '희망 +더하기' 수상자들이 20일 시상식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희망 +더하기'는 서민금융 실천 우수사례 공모 이벤트다. /신한은행 제공

상반기 신용카드 부정 사용액 40억

"회원이 분실 책임 부담한 비율 35.6%"

신용카드 도난이나 분실로 100만원이 부정사용 됐을 경우 고객은 35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사용된 금액은 총 40억7000만원, 1만652건이다.

이 가운데 회원의 책임이 인정돼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5.6%(14억5000만원)에 달했다. 부담 주체별로는 카드사가 31.4%(12억8000만원), 가맹점이 19.4%(7억9000만원), 기타 13.3%(5억4000만원) 순이다.

신 의원은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회원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이 개정됐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며 "회원의 부담 비중은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보다 1.6%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사용된 금액은 총 88억5000만원, 2만1771건으로 이중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7.2%(33억원)다.

같은 기간 카드사 부담은 34.1%(30억2000만원), 가맹점은 19.9%(17억6000만원), 기타는 8.8%(7억8000만원)다.

개정 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회원의 관리소홀 등으로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해 누군가 부정 사용하면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지난해 말 표준약관을 개정,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문제는 카드 회원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책임을 돌리는 약관을 수정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신 의원은 "제35조 예외조항 때문"이라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예외조항에는 카드의 관리 소홀이 있을 경우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관리 소홀이라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의 소지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공정위와 금감원은 작년에 표준약관이 개정됐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채대윤기자 alive1203@

5만원권 환수율 5년만에 최저

3분기 10%대로 뚝… 탈세 등 악용 우려

5만원권 지폐의 회수율이 발행 첫해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9월 발행된 5만원권은 4조9410억원에 달했지만, 환수된 5만원권은 9820억원으로 환수율이 19.9%에 그쳤다.

분기 환수율이 이보다 낮은 적은 2009년 6월 첫 발행 이후 그해 2분기(0.1%)와 3분기(1.1%)를 빼고는 없다.

5만원권의 환수율 하락이 지하경제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다.

한은은 올해 처음으로 일반인과 기업을 상대로 화폐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연내 공표할 방침이다.

5만원권은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난해부터 환수율이 급락,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탈세 등 지하경제 수요를 오히려 늘린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돼 왔지만 정확한 원인 분석은 하지 않은 상태다. /김문호기자 minis@

"코스피 반등 조짐 보였다" 안도의 한숨

1930선 전문가들도 추가하락보다 반등에 베팅

지난주 바닥을 뚫고 내려가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던 증시가 20일 반등하자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증시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추가 하락론과 "바닥을 쳤으니 반등할 것"이란 바닥론이 팽팽하게 맞서던 상황에서 반등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40포인트 오른 1930.06에 종가를 형성했다. 4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3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기관이 1000억원 넘게 사들인 가운데 대외 리스크에 줄곧 팔자 행진을 보이던 외국인도 이달 들어 첫 순매수세를 기록했다.

지난 17일 장중 1900선 붕괴를 겪으며 답답하던 시장의 분위기와 대조적이다.

오승훈 대신증권 스트레티지스트는 "시장의 리스크와 공포를 가늠케 하는 지표들 대부분이 2011년 하반기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공포심리가 극단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시장에 우리가 미리 반영된 측면도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급반등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와 유럽 증시는 지난 주말 각각 1.29%와 3% 안팎의 동반 강세를 보였다.

지난주 후반 추가하락 가능성을 우려하던 시장의 분위기는 "반등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모습이다. 다만 유로존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국내 경제의 흐름도 지지부진해 큰 반등을 이뤄내긴 어려울 전망이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최근 달러 강세가 진정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이틀 신흥국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약화되는 전조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화탁 동부증권 주식전략팀 이코노미스트는 "유럽과 북미 아시아 등지에서 중앙은행을 포함한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공포'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패닉 셀링' 이었다는 경험도 작동할 것이므로 펀더멘털 대비 낙폭이 과다했던 종목에 투자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63개 여전사 자산건전성 점검 착수

금융당국이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한 적정성을 점검키로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63개 여전사에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감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말까지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여전사에서 자산건전성 분류를 제대로 못해 충당금을 덜 쌓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전반적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10억원 이상 여신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건별로 철저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박선람기자

사회공헌 통합 브랜드 '드림아이' 출범 삼성화재(사장 안민수)는 사회공헌 활동 통합 브랜드인 '드림아이(Dream i)'를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직원들이 26일 임직원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소득가정 아동 600명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한 안전키트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화재 제공

현대차 아슬란 등장에 경쟁사 '초긴장'

사전 예약 1700대 넘어…르노삼성·한국GM '속앓이'

지난 15일 현대차 R&D 테크 페스티벌에 모습을 드러낸 아슬란

현대차가 이달 말 출시할 고급세단 '아슬란'의 기세가 심상치 않아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아슬란은 이달 6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했는데 20일 현재 1700대를 넘어섰다. 이는 매일 120대가 넘게 계약되는 수준이다.

아슬란은 그랜저와 제네시스 사이에 자리하는 최고급 전륜구동 세단이다. 그랜저와 제네시스의 간극이 크다는 내부 분석에 따라 이 사이를 메울 차종으로 개발됐다.

아슬란 데뷔의 영향을 받을 차는 르노삼성 SM7과 한국GM 알페온, 기아 K7 등 국산 경쟁차종이다. 이들 차종은 아슬란보다 한 급 아래인 그랜저와 경쟁하는 처지만, 각 메이커에서 최고급 전륜구동 모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슬란과 비교 대상에 오르고 있다.

기아차는 플래그십인 K9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입장이다. K7과 K9으로 아슬란을 협공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르노삼성과 한국GM은 SM7이나 알페온 반 차종으로 버텨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전문가는 "르노삼성은 'SM7 노바'를 내놓으면서 기술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소비자들은 판매 1~2위 모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중대형차 판매 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SM7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판매 실적을 보면, 현대 그랜저는 6만6027대가 팔렸고 그 뒤로 기아 K7 1만6267대, 한국GM 알페온 3658대, 르노삼성 SM7 2907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로서는 그랜저 고객층을 유지하면서 경쟁사 고객을 아슬란으로 유치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이고, 저즘이 많지 않은 한국GM과 르노삼성은 고객 이탈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슬란은 국산차뿐 아니라 수입차업체에게도 경계대상이다. 토요타 캠리와 닛산 알티마, 폭스바겐 파사트, 혼다 어코드, 포드 퓨전 고객들이 아슬란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슬란이 더 고급스러운 처지만 배기량과 가격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수입차의 판매 현황을 보면 토요타 캠리 1906대, 닛산 알티마 1606대, 혼다 어코드 1567대, 포드 퓨전 501대 등 5580대다. 이는 알페온과 SM7의 판매를 합친 6565대에 근접하는 수치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자동차 전문가는 "현대차는 최근 신제품 발표회에서 르노삼성을 비롯한 국내 메이커들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그랜저에서 수입차로 갈아타려는 이들을 아슬란으로 잡으려는 게 현대차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채기자 fumi-5@metroseoul.co.kr

GS칼텍스 5년간 과징금 2355억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GS칼텍스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 2355억원을 부과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GS칼텍스에 부과한 과징금은 2355억원이다.

SK가스 1987억원, E1 1893억원, 삼성전자 1739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과징금 1위 기업은 ▲에너지업 GS칼텍스(2355억원) ▲제조업 삼성전자(1739억원) ▲금융보험업 삼성생명(1675억원) ▲건설업 현대건설(1216억원) ▲노소매업 SK네트웍스(71억원)다.

공정위의 제재를 종합적으로 따진 '공정거래법 위반 1위' 기업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벌점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는 줄어들지 않았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준기자 [illegible]

PC·스마트폰 고장 걱정 끝

출장점검·복구 'NEW 알약안심케어' 출시

저렴한 가격에 고장난 PC나 스마트폰을 고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이스트소프트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NEW 알약안심케어'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알약안심케어는 PC·스마트폰 원격점검 서비스만을 지원했으나 사용자의 보안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해 '알약안심케어 출장점검', '알약안심케어 알벡(PC복구)' 서비스를 추가했다.

알약안심케어 출장점검은 원격 점검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팅 문제, 하드웨어 결함 등을 해결해 주는 것이 장점이다. 비용은 2만9700원(1회권)이다. 특히 출장기사가 하드웨어 교체 후 부당요금을 요구한 경우, 확인을 거쳐 고객이 지불한 대금의 3배를 보상하는 등 기존 출장점검 서비스에서 자주 발생해 왔던 문제점도 보완했다.

알약안심케어 알벡(PC복구)은 안전한 PC상태를 저장해 PC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중요한 데이터가 사라진 문제를 해결해준다. 1회권은 6600원, 1년권은 1만4000원이다.

/이국현기자 [illegibl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행복시장 원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행복시장 원정대원들이 20일 서울 광장시장에서 '행복시장 원정대' 발대식을 열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행복시장 원정대'는 21일부터 12일동안 전국 15개 문화관광형시장을 방문, 먹거리와 특산물, 관광명소 등을 체험하고 SNS를 통해 전통시장을 알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대한상의 5대 규제개혁 건의

'갤럭시노트4엔 피로도 측정 기능 있다던데 내수용에는 왜 없지?'

국내 경제계가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경제재도약을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5대 규제개혁과제는 ▲신사업 발목잡는 규제인프라 ▲신사업의 불확실 화석규제 ▲경제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규제 ▲우물안 개구리규제 ▲국제경쟁력 약화요인 성역규제 등이다.

신사업 발목 잡는 규제인프라의 경우 디지털헬스기기, 무인항공기 등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4의 경우 피로도 지표인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탑재됐지만 미국에서만 정상 출시되고 한국에서는 이 기능이 제외된 채 판매되고 있다.

미국은 피로도나 심전도, 혈당 체크용 센서 등을 탑재해도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비의료기기로 분류하지만 우리나라는 심박·맥박 측정기능과 운동 레저목적에 한해서만 의료기기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준기자

유료 관중만 4만 '롤드컵' 성황리 끝났지만…

대기줄 불편·관중 에티켓 개선과제로

입구부터 터널까지 이어진 줄, 경기장을 뒤덮은 쓰레기.

국내 역대 최고 규모로 열린 e스포츠 대회 '2014시즌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 막을 내리면서 대회 운영과 관중 에티켓 개선이 과제로 남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 대회 결승전(일명 롤드컵)'에 4만명의 관중이 몰렸다. 이날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 삼성 화이트가 중국 대표 로열 클럽을 누르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주최측인 라이엇 게임즈는 4만명의 유료 관중을 고려해 오전 8시부터 티켓 박스를 열었지만 계속 유입되는 관객들로 대기줄은 경기장 서측과 상암사거리를 잇는 월드컵 터널까지 이어졌다. 터널 줄을 섰다는 한 관객은 "입구는 적고 사람은 많아서 대기줄이 무한대로 길어졌다"며 "중간에 새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를 제지하는 관리 요원이 안 보여 대기 내내 힘들었다"고 말했다.

터널 대기줄 논란에 대해 라이엇 게임즈 관계자는 "입장 속도를 못 높여 아쉽다. 입장 시뮬레이션을 수없이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관중이 몰리면서 대기줄이 터널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 하지만 대기자 형평성 문제 때문에 대기줄을 중간에 끊을 수도 없었다. '1시간 뒤에 오세요'라고 공지를 하더라도 그 중간에 오는 사람들의 순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입구를 늘려 빨리빨리 입장시키면 좋을 수 있겠지만 만일의 안전 사고를 우려해 입구 개수를 함부로 늘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롤드컵 결승전이 열린 상암월드컵경기장 입구부터 월드컵 터널까지 이어진 대기줄 /리그 오브 레전드 한국 커뮤니티 제공

롤드컵 결승전 진행 과정에서 상암경기장 잔디가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며 "시설에서 민원 온 적이 없다. 공연 무대는 잔디 위에 직접 설치되지 않았으며 모든 운영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중들의 에티켓 부재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각종 응원도구와 음식물 쓰레기를 경기장에 두고 가는 사람이 많아 행사가 종료된 상암경기장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한 관객은 "팬 콘서트의 경우 좋아하는 가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관객들이 뒷정리를 깨끗이 한다"며 "롤드컵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e스포츠 행사인데 관중 에티켓이 너무 실망스럽다. 해외에 이 사실이 퍼지면 우리나라에서 자기 국제 행사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엇 게임즈 관계자는 "대회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que@metroseoul.co.kr

삼성전자 '디지털 예쁜 엽서전' 삼성전자가 20일 삼성 갤럭시 노트4와 MBC가 함께하는 디지털 예쁜 엽서전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제공

SKT-삼성전자, '5G 기술' 공동연구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차세대 이동통신(5G) 기술 진화 선도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5G 이동통신 관련 양사간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양사는 네트워크 기술 및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동 기술 연구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MOU 체결로 양사는 ▲국내외 표준화 단체·기술 협의체에서 5G 비전 공유를 통한 상호 협력 ▲5G 구현이 적합한 주파수 대역의 정의 및 선정을 위한 협력 ▲차세대 소형 셀 기술 ▲대용량 다중입출력 안테나 기술 ▲차세대 변복조 기술 등 5G이동통신 기반 기술 연구 개발 및 공동시험 ▲대용량 고품질 5G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공동 연구에 돌입한다.

5G는 국제적으로 요구 사항 및 기술 규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국내외에서 논의 중인 5G개념은 LTE 대비 약 1000배 데이터 용량과 개인당 1Gbps 이상 속도와 고밀도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통신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차세대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성능 지표를 수립, 개발해 5G 이동통신 기술 진화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기가급 데이터 전송을 기반으로 ▲증강·가상 현실 서비스 ▲홀로그램 등 실감형 서비스 ▲원격 현실화의 서비스 등을 고려 중이다. 이 밖에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물과 인간이 연결돼 상호 작용이 가능한 초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드밴스드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최진성 SK텔레콤 ICT 기술원장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통신네트워크 제조사 간 5G 비전 공유를 통한 공동연구로 차세대 5G 이동통신 기술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

단지 상가 스트리트몰, 주거+상업 '윈윈'

가로수길·카페거리가 아파트 안으로 쏙
편의성 증대 상가와 분양 시너지 효과

단지 내 상가가 스트리트몰 형식으로 진화하면서 아파트와 상가 모두 윈윈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로의 분양에 도움을 주는가 하면, 시세 상승과 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것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지 상가를 스트리트몰로 구성된 아파트를 향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된 '송파 와이즈 더샵'은 금융위기 이후 인기가 하락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설계됐음에도 1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전 주택형 마감됐다.

올 들어 7월 반도건설이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던 세종시에 분양한 '세종 반도유보라' 역시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다.

이들 아파트가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인 분양 성적을 거둔 데는 단지 내 상가로 계획된 스트리트몰이 한 몫 한 것으로 평가된다. 스트리트몰이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분당 카페거리 등처럼 지역 명소가 되면서 아파트 분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스트리트몰을 끼고 있는 아파트는 가격도 강세다. 정자동 카페거리의 시초로 이름을 날린 분당 동양파라곤의 전용면적 80㎡ 시세는 현재 6억7000만원대로 바로 옆 H아파트보다 8000만원가량 높다.

업계 관계자는 "단지 상가로 스트리트몰을 조성할 경우 아파트 입주민은 편의성 증대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며 "여기에 상가도 풍부하고 안정적인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상권 활성화를 꾀할 수 있어 윈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크로타워 스퀘어에 조성될 스트리트몰 이미지

이처럼 아파트와 상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면서 최근 단지 상가를 스트리트몰로 구성하는 단지들도 늘고 있다.

대림산업은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선보이는 '아크로타워 스퀘어' 단지 상가를 스트리트몰 형태로 꾸몄다. 감각적이고 세련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판교의 아브뉴프랑과 같은 고급 여가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도건설이 경기도 동탄2신도시 C15블록에 공급하는 '동탄2 시범단지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4.0'도 '카림 애비뉴 동탄' 스트리트형 상가를 배치한다. 이 상가는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와 일본의 롯폰기힐즈를 세운 '모리빌딩 도시기획'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기획됐다.

경기도 광명역세권지구 4블록에서 GS건설이 공급한 '광명역 파크자이'에도 스트리트 형태의 상가가 들어선다. 아파트·오피스텔·상가로 구성된 복합단지로 광명역세권과 마주보는 입지를 갖춰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박선옥기자 psc9820@metroseoul.co.kr

도곡동 타워팰리스 23억원

아파트 전세 최고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거래된 전세 아파트 중 최고가는 전세 가액이 23억원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해 10월 이후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최고가 아파트는 올해 4월 초 계약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전용 244.66㎡로 23억원에 달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 가격(3억3000만원)의 7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1월과 5월에 각각 43억7000만원에 팔리는 등 매매가격이 40억~45억원 선에 형성돼 있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절반을 웃도는(51~57%) 셈이다.

또 타워팰리스를 비롯해 고가 전세 상위권 아파트는 대부분 강남·서초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2위(동일 아파트의 다른 주택형 제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95.34㎡,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2 전용 244.32㎡, 서초 잠원빌 폴라리스 전용 244.76㎡로 세 아파트 모두 전세가격이 각각 20억원이었다. 이들 아파트는 모두 봄 이사철이던 지난 3~4월에 새 임차인을 받았다.

또 3월에 계약된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244.63㎡가 18억원, 2월에 거래된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2단지 241.88㎡가 17억5000만원, 역시 2월에 거래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22.15㎡가 17억6000만원에 계약되며 그 뒤를 이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전용 170.98㎡가 4월 17억원에 거래되면서 유일하게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비해 최근 1년간 거래된 전세 아파트중 최저가에 신고된 곳은 경북 칠곡군 약목면의 성재아파트 전용 39.24㎡와 전북 군산시 나운동 주공2차 전용 35.64㎡로 각각 800만원이었다.

최고가인 타워팰리스 1가구 전세(23억원)는 칠곡 성재 또는 나운 주공2 아파트의 287가구의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금액이다.

서울지역에서 가장 싼 값에 거래된 전세 아파트는 동대문구 답십리 센시티16 전용 14.24㎡로 지난해 12월 말 2000만원에 계약됐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 정자동 파크뷰 전용 182.23㎡가 올해 1월 8억5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로 기록됐고, 최저가 전세는 포천시 신북면 거산아파트 43㎡로 지난해 10월 1500만원에 계약됐다.

지방에서 전셋값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아이파크 전용 234.58㎡로 올해 4월 말 8억원에 거래됐다.

/김두탁기자 kimdt@

모델하우스 오픈된 하연 구름 인파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에서 대림산업이 개관한 '아크로타워 스퀘어' 견본주택으로 19일까지 3일간 1만5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다. 견본주택 관람객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입지·생활·상품 1번지,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분양

시공능력평가순위 1, 2위 건설사의 높은 브랜드 가치와 맞물려 일대 주거문화를 선도할 아파트가 나타났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주관사 삼성물산)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 지상 35층 51개동, 전체 3658가구의 대단지로 연면적만 63빌딩(16만6100㎡)의 4배가 넘는 68만8500㎡에 이른다. 전용면적 ▲84㎡ 759가구 ▲97㎡ 278가구 ▲109㎡ 46가구 ▲120㎡ 27가구 ▲141㎡ 1가구 ▲161㎡ 2가구 ▲192㎡ 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울지하철 5호선 고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올림픽대로와 천호대로 등을 통해 도심권과 강남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 가능하다. 특히 고덕역은 보훈병원과 강일1지구를 잇는 9호선 연장 구간과 환승될 예정이며 구리암사대교와 융마터널도 연내 준공을 앞뒀다.

반경 1km 이내 이마트, 강동경희대학병원, 강동아트센터 등이 있고 명덕초, 묘곡초, 명일중, 광문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또 배재고, 명일여고, 한영외고 등의 명문고등학교가 가깝고, 주변으로 유흥업소나 유해시설도 없다.

최고 브랜드 래미안과 힐스테이트가 짓는 강동구 최대 규모인 만큼 상품 또한 고급스럽게 구성된다. 우선 1층에 필로티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고, 넓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일조량과 조망권도 최대한 확보했다.

견본주택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7년 2월 예정이다. 문의 (02)554-5574

/박선옥기자

친환경 포장재 사용 늘리는 유통업계

용기 경량화·신소재 사용 등 다양

1년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30~35%는 포장 폐기물이라고 한다. 포장을 줄이면 환경보호는 물론 제작 비용과 생활비 절감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녹색 소비에서 시작된 친환경 바람이 최근 식음료업계의 포장 용기까지 불고 있다. 그동안 단순히 제품을 포장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식품 섭취 후 남은 제품의 보관성을 높이고 재활용 종이류으로 만든 포장재부터 매립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최소화한 경량화 용기까지 친환경 포장 바람에 동참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먼저 외식업계의 친환경 포장이 눈에 띈다.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은 최근 제품 포장박스를 식물성 콩기름으로 인쇄된 친환경 포장박스로 전면 교체했다. 콩기름 인쇄는 대두유는 휘발성 유기물질이 사용되지 않는다. 천연원료이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해 쉽게 분해돼 환경 오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인 '죠스떡볶이'는 지난해 일부터 테이크아웃용 포장 용기 일체를 천연 신소재로 만든 친환경 용기로 교체했다. 이 포장용기는 현존하는 물질 중 가장 가볍고 강도와 내열성을 고루 갖춘 순도 100% 이산화규소(SiO_2)가 주성분으로 매립 후 2년 이내에 썩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 소재 플라스틱 용기와 비교해 소각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에 불과하고 산소투과율이 60% 이상 낮으며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것이다.

도시락 브랜드 '본도시락'도 천연원료를 주재료로 한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옥수수전분으로 만든 용기 있다. 또 옥수수전분의 특성 상 소각해도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아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했다.

(왼쪽부터) 종가집 '맛김치' 지퍼스탠딩 파우치, 다향오리 '다향오리는순하다' 세트, 죠스떡볶이

KGC 인삼공사는 '정관장 다면세트'에 기존에 사용되던 종이+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을 PLA(Polylactide) 소재로 변경했다. 이 소재는 토양매립 시 자연분해가 가능할 뿐 아니라 기존 PET 대비 탄소 배출량을 50%나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용기 자체의 중량을 줄이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젓가자 등에 PET 용기의 중량을 20g까지 줄인데 이어 플라스틱 캡도 기존 3.2g에서 2.65로 경량화했다. 경량화 한 용기는 제품의 생산·유통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여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포장을 바꾼 경우도 있다.

대상FNF 종가집은 '종가집 맛김치' 제품 입구에 지퍼백을 적용한 형태로 포장을 리뉴얼 해 보관상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패키지의 밑부분을 넓게 만들어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게 설계해 별도의 용기 없이 편리하게 김치를 먹을 수 있게 했다.

이마트는 지난 추석 시즌에 한성 한우와 한우 갈비 세트 안에 넣는 인공 보냉제 10만개를 냉동 사골 육수 팩으로 교체했다. 아이스팩 대신 300g짜리 냉동 한우 진한 국물 곰탕 2개를 넣어 보냉제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다향오리'의 경우 지난 추석 선물세트 한정판으로 1회용 아이스박스가 아닌 다용도 아이스백에 담아 판매해 소비자들이 향후 캠핑이나 나들이 등 외부 활동 때 이 아이스백을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포장재 낭비를 줄였다.

/기자 @metroseoul.co.kr

미래 주도 우수 농산물 현대백화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압구정본점에서 20일부터 29일까지 농식품 6차산업화 우수 제품 판매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차산업 농촌기업의 우수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궁궐식혜, 한그루·두리담 등 6차산업화 예비인증을 받은 사업체 10곳이 유제품·잼·차 등 41개 제품을 판매한다. /현대백화점 제공

겨울용품 판매전 돌입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 이용하면 경제적

20일과 21일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는 가운데 대형 마트들이 내의를 비롯해 단열시트와 전기요 등 겨울 채비 용품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먼저 이마트는 오는 23일부터 일주일간 난방비 절약 겨울준비 행사를 연다.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단열시트'는 원자재를 비수기에 저렴하게 구매하고 포장 방식 개선을 통한 원가를 절감해 전년 대비 최대 40%가량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또 효성과 손잡고 면이나 울보다 가벼지만 보온성을 높인 '에어로웜' 소재를 적용한 기능성 언더웨어인 '히트핏'을 기존 유명 브랜드보다 30%정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실속형 전기요'는 대량물량을 사전 기획해 일반 상품 대비 50%가량 저렴한 2만9900원(싱글기준)에 선보인다.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겨울 침구 대전'을 벌이고 있는 홈플러스는 20일 전국 매장과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밍크라이크·메가 히트 등 기능성으로 무장한 저렴한 플로렌스&프레드(사진)의 겨울 신상 의류를 선보였다.

가장 기본적인 겨울 의류로

플리스 웨어 9900원부터, 팬츠 1만9900원부터 판매하며 여성 의류 중 밍크라이크 제품을 처음으로 판매한다.

태양의 적외선 파장을 증폭시켜 열을 내고 땀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극한 보온의 기능성 섬유로 속이 비어있는 중공사를 사용해 가볍고 땀을 제어하는 수분 통제 기능이 있어 더욱 쾌적한 착용감을 주는 메가 히트 제품도 선보였다.

롯데마트도 23일부터 29일까지 전기요, 전기매트, 발열·보온내의 등 다양한 겨울철 필수 품목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전기요 매트 균일가 특화전을 진행해 중형 사이즈를 3만9800원에 대형 사이즈를 4만9800원에 판매한다. 한일 전기 매트 1인용을 7만9000원에, 2인용은 9만5000원에 각각 판매한다.

/정윤희기자

강강술래, 31일까지 '환절기 피부 힐링' 이벤트

아토피성 피부에 좋은 게르마늄비누 증정
보양식 곰탕·돈가스·육포 등 3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환절기 피부질환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어드큐와 아토피성 피부에 좋은 '헬플러스케어 게르마늄 비누세트(5만9000원)'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 천연 미네랄과 고순도 게르마늄을 나노바이어공법으로 합성해 피부세포 보호 및 트러블 적응력을 높일 수 있고 강력한 원적외선 음이온 및 산소가 발생해 피부 노폐물 제거 및 중금속 배출 효과가 뛰어나다.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큰 일교차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 기력보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30% 할인판매도 벌인다.

곰탕 소용량 선물세트(350㎖×5팩-10인분)는 2만2500원, 대용량 선물세트(800㎖×5팩-15인분)는 3만88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넣지 않고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또 100% 국내산 돼지 등등심과 자연치즈를 사용한 통등심돈가스(3세트 2.16㎏·3만1500원)와 모짜렐라돈가스(3세트 2.16㎏·3만74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50g 6봉·2만5800원)도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강강양념(520g)+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500g)으로 구성된 나들이세트는 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 이달 말까지 40% 할인된 6만 원에 판매한다.

/정영일기자

우아한 '추남'은 니트를…

특유의 포근함 부드러운 분위기 연출

우아하고 분위기 있는 가을 남자의 필수 패션 아이템은 니트다. 포근한 느낌과 함께 자연스러운 멋까지 더할 수 있는 니트는 특유의 따뜻함 때문에 가을은 물론 겨울까지 사랑을 받는다.

올 가을은 베이지·그레이·버건디 등이 인기 색상으로 떠올랐다. 그중 버건디 컬러는 니트 하나만 입어도 스타일리시한 연출이 가능하지만, 깔끔한 패션 셔츠나 수트와 매치하면 고급스러운 오피스룩이 완성된다.

베이지나 그레이와 같은 모노톤의 니트는 옅은 브라운·오렌지 색의 팬츠와 함께 입으면 생동감 있는 캐주얼룩을 연출할 수 있다. 이때 스카프, 가죽 가방, 심플한 로퍼 등 소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한결 감각적인 느낌을 더할 수 있다.

평소 소극적인 스타일링을 해왔다면 이번 시즌에는 독특한 패턴의 니트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화려한 문양이 들어간 니트는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가을 패션에 포인트가 된다. 튀는 무늬가 부담스럽다면 노르딕 패턴부터 시작하면 된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스트라이프 무늬도 단정하면서 센스 있는 룩을 완성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라코스테 마케팅팀 관계자는 "이번 시즌 키 컬러인 버건디·베이지·그레이를 케이블 조직이나 골지, 믹스 패턴 조직 등의 다양한 디자인 컬렉션과 함께 하면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멋진 도시룩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기자

패션업계 '脫백화점'

홈쇼핑과 손잡고 기획 상품 등 출시

패션 기업이 고비용 구조의 백화점을 벗어나 홈쇼핑과 소셜커머스로 발을 넓히고 있다. 이에 홈쇼핑과 소셜커머스도 기존에는 단기 효과를 기대하고 저렴한 제품 판매나 입점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패션 기업과 손잡고 기획 제품도 내놓고 있다.

홈쇼핑 업계는 잇따라 패션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독점 상품 공급에 나서고 있다. 패션은 고마진인데다 재구매가 이뤄지고 있어 업체 입장에선 효자 카테고리다. 패션 기업 입장에서도 홍보 효과와 단기간 많은 판매고를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홈쇼핑 판매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홈쇼핑은 히트 상품을 배출하면서 패션 매출 비중도 30%를 웃돌고 있다.

CJ오쇼핑은 지난 18일 FUBU 론칭 방송을 편성했다. FUBU는 제일모직이 1999년부터 전개했던 브랜드로 불황에 지난해 중단됐다가 이번에 리뉴얼 출시된 것이다. CJ오쇼핑은 제일모직과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힙합 캐주얼 브랜드에서 스포티브 캐주얼 브랜드로 다시 내놓는다.

롯데홈쇼핑도 LF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질 바이 질스튜어트를 국내 홈쇼핑 최초 론칭했다. 롯데홈쇼핑은 제품 기획부터 생산·판매 등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단독 리미티드 상품도 출시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먼저 제휴를 요청하는 패션 기업도 있다"며 "홈쇼핑이 패션에 공을 들이면서 주요 패션 판매 채널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셜커머스도 패션을 키우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 9월부터 '테지움 테디베어'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스타일소싱과 손잡고 단독 의류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1차와 2차에서 각각 1338개·2115개 팔리면서 3차 판매에 나섰다.

온라인유통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백화점에 납품을 했었다면 점차 온라인으로 확대되는 추세다"며 "소비자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 구매를 많이 하면서 패션 업체들도 이에 맞춰 온라인몰에 입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1215@metroseoul.co.kr

착한 구강건강 캠페인 20일 오전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교복을 입은 어린이 모델들과 의사 가운을 착용한 여성 모델이 치아 모형을 들고 한국P&G와 롯데마트의 공동 사회공헌활동 '행복나눔 캠페인' 취지를 소개하며 즐거운 칫솔질을 선보이고 있다. 행복나눔 캠페인은 제품 구매를 통해 보육시설 청소년의 구강교육 및 구강진료를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한국P&G 제공

뉴스&뉴스

샘표, 내달 10일까지 신입사원 원서 접수

● 샘표는 11월 10일까지 2015년 공채 신입사원 원서를 접수받는다.

이번 신입사원 채용에서는 경영지원, 마케팅, 영업, R&D, 생산관리 등의 직군에서 샘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선발한다. 이번에도 성별·종교·학교·학점·어학점수에 차별을 두지 않는 '5無 열린 채용' 방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예정)자라면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입사지원서는 샘표 채용 홈페이지(http://recruit.sempio.com)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신세계, 청년상인 및 가업승계 아카데미

● 신세계그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청년상인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는 등 청년 상인 육성에 나선 가운데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 신세계인재개발원에서 정일재 전 신세계푸드 대표가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청년상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의 CS경영' 수업을 강의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인재개발원에서 ▲청년기업가 정신 ▲이마트 선정원리와 성공창업 전략 ▲정부지원 정책과 자금 조달 ▲식품 위생과 안전 등 총 17개의 과정을 11월 14일까지 진행한다.

맥도날드, 디럭스 슈림프 버거 출시

● 맥도날드는 오는 22일 신제품 '디럭스 슈림프 버거'와 '레몬 레모네이드'를 출시하고 11월 30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회사 측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21일 오후 4시부터 맥도날드 매장을 찾는 고객 중 선착순 100명에게는 맥도날드의 신제품 디럭스 슈림프 버거 한 개씩을 무료로 증정된다.

불황 속 편한 신발 찾는 소비자 늘었다

컴포트 슈즈 판매량 매년 20%↑

경기 침체에도 컴포트 슈즈 인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강제화에 따르면 컴포트 슈즈의 최근 3년간 매해 1월부터 9월까지의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20% 이상씩 성장세를 보였다.

금강제화가 운영하는 '바이오소프', '버켄스탁', '디아이몬드' 등 컴포트 슈즈 판매량은 2012년 22만7000켤레에서 2013년 28만2000켤레로 24% 증가했으며, 올해는 34만8000켤레로 23% 증가했다.

이 같은 성장세는 편안한 신발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각 제화업체마다 디자인과 착용감을 동시에 만족시킨 제품을 출시해 주 고객이 장년층에서 중년층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실제 금강제화의 컴포트 슈즈 고객 중 40~50대 여성 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30%에 달했다.

제화 업계는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전문점을 오픈하는 등 컴포트 슈즈 시장 공략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밴더레이트는 컴포트 슈즈 브랜드 '워크앤레스트'를 론칭하고 신제품 '멜로우 슈즈'를 출시했다. 멜로우 슈즈는 가벼운 무게감과 발을 감싸는 부드러운 촉감과 신발을 신지 않은 듯한 편안함이 특징이다.

금강제화는 지난 9월 강남점·명동점·영등포점·롯데영등포점 등 서울 지역 4개 주요 매장에 컴포트 전문 숍인숍 '컴포트 컬렉션'을 오픈하고, 신제품을 대거 출시했다. /김수정기자

2014년 11월 27일(목)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주관

티켓 P 20만원 VIP 15만원 R 10만원 S 7만원 A 4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건강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대세

병원·제약사 등 차별화된 서비스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

삶에서 건강이 중요해지는 만큼 건강을 위한 콘텐츠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환자와 고객들을 위해 건강 상식과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소개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사람의 만족도를 꾸준히 높여가는 아이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먼저 변비 치료제 '둘코락스-에스'를 판매하는 글로벌 제약사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변비 정보 채널 사이트 '변비지식인'을 운영 중이다. 변비의 정의와 증상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아이 ▲남성 ▲임산부 등과 같이 연령과 성별에 따른 변비의 종합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변비 자가 테스트와 변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변비 완화를 위한 팁 등도 유용하다.

스타키코리아는 지난 18년 동안 보청기를 무료로 점검해주는 오픈하우스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왔다. 전국 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오픈하우스에서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명장으로 구성된 수리팀과 영업팀이 직접 보청기를 점검·수리하는 동시에 무료 청력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또 맞춤 상담 또는 신형 보청기 무상체험, 보청기 할인 판매 등의 이벤트도 함께 벌인다.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은 최근 '하이차트(hichart)' 서비스(사진)를 도입했다. 하이차트란 질병 정보와 수술 방법 등에 관한 의료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가 알기 쉽게 애니메이션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환자들은 개인 스마트폰으로 200편 이상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반복 청취가 가능하고 환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 관계사인 시지바이오는 상처 치료 방법 및 관련 제품 정보 등을 수록한 'D+Wound Solution' 가이드북과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했다. 상처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상처 전문가뿐 아니라 상처치료를 담당해야 하는 일반 의료진도 쉽게 읽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외에도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서비스를 개시한 팟캐스트 'SNUH 건강 톡톡'을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고 있다. 명지병원 이흥섭·조정현 소화기내과 교수는 환자들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장청소를 돕기 위해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윤재홍기자 hanul@metroseoul.co.kr

거짓·과대광고 필러 제품 적발

식약처, 사용 금지 부위 권장… 해당 광고 삭제

국내에서 거짓·과대광고를 해왔던 성형용 필러 제품 12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와 미간 등에 사용 금지를 명시한 성형용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눈 주위와 미간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를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휴메딕스 ▲LG생명과학 ▲갈더마코리아 ▲…린코스모 ▲리독스바이오 ▲덤즈이 사이언시픽 ▲에디포커스 ▲엠엔엘 ▲오레온싸이언스 ▲테라스템 ▲한국엘러간 ▲…독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을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기관의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력 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용기자

예방접종으로 백일해 예방하세요~

영·유아·청소년 환자 크게 늘어… Tdap 백신은 무료

최근 전 세계적으로 10~19세에서의 백일해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환자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보고된 국내 백일해 환자 가운데 38%가 9~19세 사이에서 나타났다.

백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이다. 7~10일의 잠복기를 거쳐 기침과 함께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생기며 특히 숨을 들이마실 때 '웁' 소리가 나는 기침 발작이 있으면 백일해일 가능성이 높다.

또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는 5~14일 동안 항생제를 투여한 후 최소 5일 동안의 격리가 필요하며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만성 기침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예방접종을 통한 질환의 예방도 가능하다. 백일해 백신으로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과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백신이 있는데 DTaP 백신은 생후 2·4·6개월과 15~18개월, 그리고 만 4세~6세에 접종하면 된다.

청소년의 경우는 만 10세 전후부터 접종이 가능한 Tdap 백신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전면 무료사업의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부스트릭스(Boostrix)' 등의 Tdap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황재용기자

혼자사는 여성 검진은 필수

이대 목동·여성암 병원, 심기남·이사라 교수

여성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여성들은 흡연과 음주 비율이 높으며 건강관리에 소홀한 편이라 주의가 요구된다.

홀로서기한 20~30대 여성의 대부분은 취업과 직장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이에 반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운동 등은 충분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에도 무관심할 때가 많다.

특히 이들은 영양 불균형이 심각하다. 영양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식사와 인스턴트 식품의 과도한 섭취, 불규칙한 식습관 등이 원인이다.

심기남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 교수는 "영양 불균형이 장시간 지속되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은 물론 만성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규칙적인 식습관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여성 질환 검진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들고 결혼 전 검진이 어색해 검사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 검진을 통한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최선이다.

이사라 이대여성암병원 교수는 "가임기의 여성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산부인과를 찾아야 하며 성경험이 있는 여성은 반드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생리 관련 질환이 있는 여성들은 평소에도 산부인과를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건기식 꾸준히 먹어야 보약

건강기능식품 페이지서 정보 안내

환절기가 이어지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 이들이 건강을 위해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이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약장에 묵혀 두거나 복용하고 복용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효능에 대한 확신이 적고 특별한 증상의 호전이나 개선이 쉽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을 장기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영 연세중앙내과 원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식품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의약품처럼 섭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지속적인 섭취가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복용이라는 원칙에 따라 전문가의 복약 지도가 필요하며 의약품을 복용하게 될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의 복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복용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해 두거나 제품이 눈에 잘 띄도록 보관하면 잊지 않고 복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장기 복용에 따른 제품의 관리 또한 빠놓을 수 없다. 제품 대부분이 캡슐이나 정제 형태이므로 흡습이나 부패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지된 보관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페이지(www.foodnara.go.kr/hfoods/)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성분의 정보와 안전한 섭취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문화대통령, 후배에게 물려주고파"

지난 1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서태지의 9집 컴백 콘서트, 크리스말로윈 현장. /서태지컴퍼니 제공

'콰이어트 나이트'로 컴백한 **서·태·지**

딸 아이 생각하며 만든 대중적인 앨범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TV 출연

가수 서태지가 5년만에 정규 9집 '콰이어트 나이트'를 들고 돌아왔다. 컴백에 앞서 그는 후배 가수 아이유와 손을 잡고 '소격동'을 먼저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서태지가 작사·작곡한 노래를 다른 가수가 전부 부른 것은 아이유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또 그는 KBS2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에 출연해 아내 이은성과 딸아이 등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털어놨다. '문화대통령'으로서 신비주의를 고수했던 그에게는 신선한 행보였다. 서태지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콰이어트 나이트'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앨범 이야기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 이번 앨범부터 신비주의 전략을 버린 것인가. 과거와 달리 방송 활동에 적극적이다.

특별히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앨범이 이전보다 대중적이라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활동 방법을 달리 했다. 사람들이 신비주의라고 말할 때마다 내가 정말 그런지 매번 고민했다. 가수이기에 음악을 만들고, 발표하고, 공연을 하고, 방송 활동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다. 신비주의라는 말은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지 않았고 공백 기간도 5년으로 길었기 때문에 나온 것 같다. 마음 같아서는 매년 앨범을 발표하고 싶은데 작업 방식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

◆ 아이유와 함께한 '소격동'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

난 스스로를 보컬리스트가 아닌 싱어송라이터에서 '라이터' 여자 프로듀서라 생각한다. 내가 만든 노래를 다른 가수가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해왔다. '소격동'은 예쁜 노래라 여자 목소리로 부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때 떠오른 가수가 아이유였다. 아이유는 데뷔 때부터 쭉 지켜봐왔다. 어린 나이에 그런 목소리와 감성이 있다는 건 기적과 같다. 아이유 덕분에 음원 성적도 잘 나왔다. 나를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에게 내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

◆ '문화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부담스럽지는 않나.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존경하는 문화대통령'이란 말을 한 뒤로 그런 수식어가 붙었다. 과분하고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진작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독재자 같다(웃음). 이 수식어를 빨리 후배 가수가 가져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을 하고 싶다.

◆ 이번 앨범이 이전보다 대중적이라 했다. 마니아층에서는 '변절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변절자라는 말은 시나위 활동 이후 서태지와 아이들로 발표한 '난 알아요' 때도 들었다. 나는 성격이 원래 변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하려 노력한다. 이번 앨범은 확실히 변했다. 딸을 낳고 가족이 생기니 여유가 늘어났고 행복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런 감정이 고스란히 음악에 전달됐다. 9집 '콰이어트 나이트'는 내 딸 빽뿍(예쁨)이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딸도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자 했다. 사실 대중적인 음악이라는 평가가 기쁘다. 나를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도 편하게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지난 18일 개최한 컴백 공연에서 신곡 '90s 아이콘'을 소개하며 '한물간 별 볼일 없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라고 소개했다.

다분히 연출됐지만 진심이 담긴 멘트다(웃음). 90년대의 아이콘 할 좀의 고해성사 같은 노래다. 나이가 들다보니 내가 90년대 했던 것처럼 음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매일같이 좌절을 겪으며 만든 음반이 이번 9집이다. 나도 나이가 들었고 팬들도 나이가 들었다. 새로운 주류가 나오면서 우리는 주변으로 밀려나는 느낌이다. 이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한다. 대신 팬들은 언제나 하늘 위에 떠있다는 희망에 대해 노래했다.

◆ 컴백 공연이 예정보다 짧아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활동 계획은?

120분을 예상했는데 90분 정도 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했던 컴백 공연 중 곡수는 18곡으로 제일 많았다. 5년 만에 서는 무대라 긴장해서인지 멘트를 많이 못했다. 밴드 솔로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긴장한 나머지 후다닥 지나갔다. 그래도 팬들의 환호성을 들으니 앞으로 다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특별 공연도 구상 중이다. 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다.

/김지연기자 taeyakim@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한국 밴드 '전설과 대세' 한자리에 모인다

박명수·이하늘의 DJ 파티까지… '2014 춘천 밴드 페스티벌' 대향연

한국 밴드 1세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방송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들었던 최고의 뮤지션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우림, 한상원 밴드, 시나위부터 노브레인, 국카스텐 등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대표 밴드들이 낭만의 도시 춘천에서 역대 최강의 라인업으로 음악 축제를 연다. 인디 밴드는 물론 락 밴드의 전설부터 현재 한국 밴드 계를 이끄는 대세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진풍경이 연출돼 관객들은 진정한 축제를 즐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에 걸쳐 춘천 중도 선착장 수변공원에서 벌어지는 2014 춘천 밴드 페스티벌 이 총 300분 긴 춘천을 달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슈퍼밴드 공연, 아마추어밴드 경연대회, 댄스존 파티존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돼 있다.

첫날인 24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 동안 이어지는 공연에는 이치현과 벗님들을 시작으로 코이케가진과 H20, 블루파브리카, 데이브레이크, 시나위, 노브레인,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고 자우림밴드가 끝을 장식한다. 둘째날인 25일에는 최이철·사랑과평화, 한중아, 장재현 밴드, 블랙스, 윤장기와 키브라더스, 조관우밴드, 나티(NATY), 한상원밴드, 게이트플라워즈, 국카스텐 등이 차례로 나서 폭발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4일과 25일 밴드 공연이 끝난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는 유명 DJ들과 파티존에서 리듬에 몸을 맡길 댄스타임이 준비돼 있다. 박명수(G Park)와 DJ DOC의 이하늘(난리부르스)을 중심으로 Jayb ee SJ' 'Dan3y Maxmate' Juncoco 등 파티문화를 이끌어가는 대표 DJ들이 축제를 이끈다.

슈퍼밴드들의 공연에 앞서 축제 양일 간 오후 시간 대에는 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도 열린다. 24일에는 예선전이 펼쳐지고 25일에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낼 예정이다.

송홍섭, 한상원, 정원영, 손성제가 심사위원으로 나서는 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는 대상 한팀에게 500만원의 상금과 최고의 프로듀서와 함께 싱글앨범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금상 팀은 200만원, 은상 팀은 100만원, 동상 팀에게는 50만원, 장려상 3개팀과 인기상 팀에게는 각각 30만원이 전달된다.

페스티벌 준비위원회 측은 "음악을 사랑하고 삶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 열정과 기를 발산할 수 있는 진정한 축제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락밴드 페스티벌은 비싼 입장료와 외국밴드 위주로 편성된 밴드 매니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면 이번 축제는 저렴한 입장료로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보자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춘천 밴드 페스티벌의 1일 이용 입장권은 3만원, 2일 모두 이용권은 5만원이며 미취학 아동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김하늘기자 [illegible]

[illegible]@metroseoul.co.kr

에픽하이 '본 헤이터' 뮤비 100만 돌파

음원 발매 앞서 공개 하루 만에 '인기몰이'

에픽하이의 신곡 '본 헤이터' 뮤직비디오(사진)가 공개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다.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공개된 '본 헤이터' 뮤직비디오는 20일 오전 10시 기준 132만4061건을 기록했다.

'본 헤이터' 뮤직비디오는 세로로 촬영·편집돼 스마트 폰으로 볼 경우 기기를 가로 방향으로 눕히지 않아도 세로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다.

또 에픽하이 멤버 다블로 미쓰라진 투컷을 비롯해 버벌진트, 빈지노, 비아이·바비, 송민호(위너) 등의 래퍼들이 등장한다.

'본 헤이터'는 에픽하이의 새 정규 앨범 '신발장'의 수록곡이다. 편견을 갖고 있거나 특정 래퍼를 펌하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헤이터'를 향한 날카로운 메시지를 담았다.

에픽하이의 정규 8집 '신발장'은 21일 온라인을 통해 먼저 공개되며 이틀 뒤 오프라인에 발매된다. 타이틀곡은 '헤픈엔딩'과 '스포일러' 이며 '막을 올리며' '부르즈 할리파' 등 12곡이 수록돼 있다.

/장이진기자

홍진영, 첫 미니앨범 '인생노트' 발표

타이틀곡 '산다는 건'… 희로애락 담아

가수 홍진영(사진)이다음달 5일 데뷔 첫 미니앨범 '인생노트'를 발표한다.

타이틀곡 '산다는 건'은 부드러운 기타 선율과 중국 전통 현악기 얼후(二胡)의 애잔한 울림이 특징인 오리엔탈 트로트다. 슬프고 애절한 멜로디 위에 누구나 겪는 인생사 희로애락을 서정적인 가사로 노래했다.

오는 27일 공개될 예정인 뮤직비디오는 취업난과 불안한 미래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딸과 젊은 시절을 바쳐 일한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아버지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밝은 미래를 다짐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홍진영은 취업준비생 딸로 등장하며 아버지 역할은 배우 최정우가 맡았다.

홍진영은 "많은 방송 활동으로 팬들이 많아졌다. 그만큼 신곡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아 걱정됐다. 다행히 좋은 곡으로 컴백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빨리 들려주고 싶어 방송 활동부터 시작하게 됐다. 그동안 생각지 못한 큰 사랑을 받은 만큼 열심히 활동해 팬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전했다.

홍진영은 오는 30일 엠넷 '엠카운트다운' 생방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곡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illegible]

tvN 월화드라마
라이어게임
극한심리추적극
끝없는 배신과 반전,
그러나 필승법은 있다!
매주 {월,화} 밤 11시 tvN 방송
이상윤 신성록

이성재 파격적인 '왕의 얼굴'

인간 vs 군주' 선조 양면성 표현 "설렌다"

배우 이성재(사진)가 KBS 2 새 수목극 '왕의 얼굴'에서 파격적인 선조의 모습을 연기한다.

이성재는 '왕의 얼굴'에서 조선의 14대 국왕 선조로 분해 정통성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예민한 성격의 왕을 표현할 예정이다. 왕좌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렸던 인간 선조와 치밀한 정치 책략으로 왕권을 지켜냈던 강인한 군주로서의 선조가 지닌 양면성을 선보인다.

그동안 무능한 왕으로만 그려져 왔던 선조의 새로운 모습은 드라마의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광해 역을 맡은 서인국과의 카리스마 대결도 극의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이성재는 "이번 작품을 통해 선조의 알려지지 않았던 모습이 나올 것 같아 스스로도 설렌다"고 소감을 전했다.

'왕의 얼굴'은 광해군이 세자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의 험난한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한 여인을 두고 삼각관계에 놓인 선조와 광해의 부자간 대결, 비극적인 운명으로 이어지는 로맨스를 담아낸다. '아이언맨'의 후속작으로 내달 중순 방송 예정. /전효진기자

SBS 주말극 '모던파머', KBS2 수목극 '아이언맨', KBS2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그래픽·효과음' 만화 품은 드라마

웹툰 원작 드라마 강세 경향 반영 몰입도·재미↑

만화책을 보는 듯한 드라마 연출이 눈에 띈다.

SBS 주말극 '모던 파머' 2회엔 인터넷 만화 '히말린 시리즈'의 한 컷이 등장했다. 웹툰은 극 중 이민기(이홍기)가 친구들과 함께 하두 옥리에 들어선 무렵 삽입됐다. 이민기는 마을 지명에 얽힌 유래를 설명하며 오랑캐를 피하던 임금을 구한 사슴에 얽힌 전설을 이야기했다. 이때 임금, 군사 그리고 오랑캐와 사슴을 생동감 있게 담아낸 웹툰이 등장했고 임금과 사슴이 엄지손가락을 척하고 세우는 '엄지 척'으로 마무리됐다. 뿐만 아니라 '모던 파머'는 첫 회에도 사람 크기만한 100원짜리 동전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현돼 재미를 더한 바 있다.

KBS2 수목극 '아이언맨'도 개성 있는 연출로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아이언맨'은 몸에서 칼이 돋는 주인공의 설정부터 동화 같은 영상미로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는 평가다. 이동 시간을 재겠다는 주홍빈(이동욱)을 업고 뛰는 고비서(한정수) 옆에는 스톱 워치가 등장한다. 주홍빈이 말대로 육하 원칙에 따라 정보를 보고할 때는 '육하 원칙'이라고 적힌 고비서의 수첩이 그래픽으로 삽입된다. 만화적인 연출은 주홍빈과 손세동(신세경)의 로맨스를 아름답게 꾸미기도 한다. 두 사람이 처음 포옹하는 장면에선 반딧불이의 환한이 퍼지자 순수한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아이언맨'의 관계자는 "창의적인 소재와 이야기로 시청자 감성을 자극할 것"이라며 "동화적인 기법으로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효과음으로 만화적 연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 KBS2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는 지난 19일 31.8%(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인기 상승 요인에는 배우들의 호연과 빠른 전개, 공감되는 이야기가 꼽히고 있다. 특히 출연진의 감정과 코믹적인 심경이 좋은 효과음과 어우러져 귀를 사로잡고 극의 탄력을 부여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강세인 경향이 반영됐다"며 "유지하다는 느낌보다는 몰입도를 높이는 쪽으로 연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중국판 '풀하우스' 12월 촬영 시작

그룹 유키스 일라이 주연

중국판 '풀하우스'가 내년 방영을 목표로 12월 촬영을 시작한다.

드라마 제작사 그룹에이트 측은 "중국 아시아 미디어 홀딩스와 함께 '풀하우스'(만화 원작 원수연) 중국판을 공동 제작한다"고 밝혔다.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풀하우스'는 2004년 정지훈(비)와 송혜교가 주연을 맡아 시청률 40%를 기록했으며 한류 팬에게도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중국판 '풀하우스'는 JTBC '더 이상은 못 참아', tvN '21세기 가족'을 연출한 이만철 감독이 참여한다. 그룹 유키스의 멤버 일라이(사진)가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여자 주인공은 오는 23일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제작발표회 후 오디션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한편 중국판 '풀하우스' 제작에 참여하는 그룹에이트는 드라마 '궁'(2006), '환상의 커플'(2006), '꽃보다 남자'(2009) 등을 만들었으며 현재 KBS2 월화극 '내일도 칸타빌레' 등 제작, 방영 중이다. /전효진기자

이종석 북경 팬미팅 성료

배우 이종석(사진)이 중국 북경 팬미팅을 통해 신 한류 대세임을 입증했다.

19일 북경 공항은 이종석을 보기 위해 인산인해였고 온라인에선 영국 영상과 소식을 실시간 중계가 하기도 했다. 북경 751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엔 50개의 현시 주요 매체가 참석해 이종석을 환영했다.

이날 북경 뷰 공간에서 열린 북경 팬미팅은 팬에게 프러포즈를 준비하는 이종석의 모습이 담긴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됐다. 이종석의 등장과 함께 공연장은 함성으로 가득했고 그는 중국말로 팬에게 인사를 건네며 호응했다.

이종석은 올해 종영된 SBS '닥터이방인' 박훈으로 변신해 직접 팬의 고민을 상담해 주거나 드라마 장면을 재연하는 다양한 이벤트로 팬미팅을 진행했다. 특히 조규만의 노래 '다 줄 거야'를 부르며 북경 팬을 위한 영상 편지를 공개해 고마움을 전했다.

이종석은 북경에 이어 내달 1일 태국에서 팬미팅을 연다. 현재 내달 중순 방영 예정인 SBS 새 수목극 '피노키오(가제)'를 준비 중이다. /전효진기자

20대 청춘★ 스크린 흥행 대결

주원·안재현·김우빈·이민호(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주원·안재현·이민호·김우빈·이현우 극장가 노크

주원, 안재현, 이민호, 김우빈, 이현우. 이들은 안방극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20대 청춘스타들이다. 드라마에서 열연가를 보였던 이들 배우가 늦가을 영화로 흥행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주원과 안재현은 다음달 6일 개봉하는 '패션왕'에서 호흡을 맞췄다. 온라인상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동명 웹툰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이들은 주인공 우기명과 김원호 역을 맡았다.

주원은 '각시탈' '7급 공무원' '굿 닥터' 에서 최근의 '내일도 칸타빌레'까지 드라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맡았다. '패션왕'에서는 패션왕을 꿈꾸는 주인공 우기명 역을 맡아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파격 변신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는 "멋과 '간지'에 눈 뜬 뒤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유쾌한 우기명에 많이 공감됐다"고 밝혔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너희들은 포위됐다'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배우 안재현은 '패션왕'에서 학생들 모두가 우러러보는 선망의 대상인 왕태자 김원호 역을 맡았다. 실제 패션모델 출신이기도 한 그는 "극중 런웨이 장면 등은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어 캐릭터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 '시티헌터' '상속자들' 등으로 한류스타로 떠오른 이민호는 오는 11월 개봉 예정인 '강남 1970'으로 스크린 첫 주연에 도전한다.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에 이은 유하 감독의 '거리 3부작' 완결편으로 개발이 막 시작된 1970년대 초 강남을 배경으로 신기루 같은 욕망이 사로잡힌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민호는 고아 출신 김종대 역을 맡았다. 그는 촬영을 마친 뒤 "어느 때보다 뜻 깊은 작품이었다. 주연으로서 첫 영화고 종대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게 돼, 그리고 좋은 배우와 스태프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드라마 '학교 2013' '상속자들'로 스타덤에 오른 김우빈, 그리고 '아름다운 그대에게'로 주목 받은 이현우는 올 하반기 개봉 예정인 '기술자들'로 뭉쳤다. 인천 세관에 숨겨진 검은 돈 1500억원을 훔쳐야 하는 최고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범죄 액션영화다. 김우빈이 금고털이부터 위조와 작전설계 등 만능 멀티플레이어 지혁 역을 맡았다. 이현우는 천재 해커 종배 역으로 함께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20년 만에 돌아온 바보 콤비

덤 앤 더머 투 11월 27일 개봉

짐 캐리, 제프 다니엘스 주연의 코미디 명작 영화 속편 '덤 앤 더머 투'(사진)가 다음달 27일 개봉한다.

'덤 앤 더머 투'는 1994년 개봉해 전 세계 관객들을 웃음의 늪으로 빠트렸던 '덤 앤 더머'의 후속작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난 딸을 찾으러 가는 두 주인공의 여정을 그렸다.

개봉일 확정과 함께 공개한 메인 포스터는 전작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자동차 '도기카'를 단 두 주연 배우의 익살스러운 모습을 담았다. 짐 캐리, 제프 다니엘스의 해맑은 표정이 20년 만에 돌아오는 바보 콤비의 귀환을 기대하게 만든다.

'덤 앤 더머 투'는 북미 지역 개봉을 앞두고 영화 전문 사이트 로튼토마토의 기대지수 평가에서 96%를 기록하고 있다. 연출은 전작에 이어 패럴리 형제가 다시 맡았다.

/장병호기자

CGV 무비꼴라쥬, 아트하우스로 재탄생

"친숙한 이름으로 영화발전 기여"

CGV ARTHOUSE

CGV의 다양성영화 전용관인 CGV 무비꼴라쥬가 11월1일부터 CGV 아트하우스로 브랜드 이름을 바꾼다. 브랜드명 변경과 함께 독립·예술영화 전문극장으로서의 새로운 가치 추구와 한국독립영화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모색한다.

20일 CGV 측은 "무비꼴라쥬 10주년을 기점으로 독립·예술영화 전문극장으로 관객들에게 보다 쉽고 폭 넓게 다가가기 위해 브랜드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비꼴라쥬라는 이름이 다소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아트하우스라는 친숙한 이름으로 브랜드명 변경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CGV 압구정과 CGV 명동역 지점 일부는 CGV 아트하우스 압구정, CGV 아트하우스 명동역으로 전환해 운영된다. 각각 3개와 2개의 스크린을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운영한다.

특히 CGV 아트하우스 압구정은 3개 스크린 중 1개 관을 1년 365일 한국독립영화만 운영하는 전용관으로 운영한다. 또 CGV 아트하우스 명동역은 기존 CGV 명동의 10층 전체 상영관을 리뉴얼해 내년 초 개관한다. 시네 라이브러리를 조성해 창의적인 영감을 얻는 작업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CGV 무비꼴라쥬 이상윤 사업담당은 "CGV는 지난 10년간 다양성 영화 전용관 확대와 다양한 관객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저변 확대에 노력해왔다"며 "이번 브랜드 전환을 계기로 관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쉽게 독립·예술영화를 즐기고 한국독립영화 전용관과 시네 라이브러리가 한국독립영화계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병호기자

'독립본색' 서울독립영화제

올해로 40주년, 다음달 27일 개막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독립영화제 2014가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서울독립영화제는 매년 연말에 열리는 경쟁 독립영화제다. 올해는 '독립본색'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음달 27일부터 12월5일까지 9일 동안 CGV 압구정과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이번에 공개한 메인 포스터는 영화제 40주년을 맞이해 내건 슬로건 '독립본색'에 걸맞게 독립영화만이 지닌 각별한 에너지를 담았다. 특히 슬로건 중 '본'의 한자(本)를 나무로 형상화해 독립영화가 지닌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정신을 강조했다. 메인 포스터 디자인은 콩트라망코우의 황신화 아트디렉터가 맡았다.

서울독립영화제 2014에서는 본선 경쟁작으로 총 46편(단편 35편, 장편 11편)을 선정했다. 총 상금은 7200만원 규모다. 21일에는 국내 초청부문 선정 작품을 공개할 계획이다.

/장병호기자

날씨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6	9
	5	4	3					
3	9			8				
	1	7					2	
		9	1		8	4		
	4					1	9	
				1			4	8
					2	9	1	
5	6							2

	7		6		1			
4	1				5			3
			3	4				
2	8					3		
1	9						6	7
		7					4	1
				3	4			
8			5				3	4
			9		6		7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 - 보누스
(연사 스도쿠 프리미어
(미터 고든 프렌크 롱고 지음)

한방차 한잔으로 감기 다스리기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흔히 하는 우스개 중에 '감기는 약을 먹으면 7일 만에 낫고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틀린 말이 아니다. 이 세상에 감기를 낫게 하는 '약'은 없기 때문이다. 감기 바이러스는 밝혀진 것만 약 200여종으로 감기의 원인을 특정 짓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감기를 예방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흔히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한방에서는 가장 약한 부위를 찾고 감기 기운이 몸에 침입한다고 본다. 자신의 감기 증상을 고려해 그 증상에 좋은 한방차를 마신다면 의외로 쉽게 감기 예방을 할 수 있다. 한방차라고 해서 보기 힘들고 비싼 약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만들기도 어렵지 않다.

감기가 기관지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 기침을 많이 하고 가래가 많이 생긴다면 은행차를 마시자. 은행은 폐와 위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막힌 기운을 뚫어준다. 10여 개의 은행을 냄비에 볶은 뒤 물 두세 컵을 넣고 끓인다. 한번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 물이 반이 될 때까지 달인 후 꿀을 타서 마시면 된다.

근육통을 동반한 감기몸살이 잦다면 생강모과차를 활용한다. 생강은 몸의 열을 올려 기운을 고르게 하고 모과와 함께 근육통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이 차는 평소 아침저녁으로 한잔씩 마셔주면 좋다. 근육통을 동반한 감기 기운이 있을 때에는 조금 더 진하게 타서 마신다. 설탕에 재운 모과를 따뜻한 물에 탄 후 생강 한쪽을 갈아 넣어 함께 마시면 된다. 단 맛이 싫다면 말린 모과와 말린 생강을 시다기 은행차처럼 끓여도 좋다.

감기로 열이 계속될 때는 대파 뿌리를 끓여 마신다. 이 때 대파 뿌리란 대파의 뿌리와 그 위의 흰 부분까지를 말한다. 예부터 한방에서는 이 부분을 '총백'이라고 해 약재로 두루 썼다.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천연 해열제라고 해도 무방하다. 대파뿌리 2~3개를 넣고 물 두세 컵 정도를 넣은 후 약한 불에서 20여분 끓였다가 마시면 된다.

/김소형 본초의 비사(김소형 한의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무속인 조모 꿈속에서 자주 보는데 할머니의 보살핌에 사업 번창할 듯

Q zkwamsh님 75년 7월7일 음력 밤9시경

할머니가 무속인 이었습니다. 저를 기도해서 낳으셨는지 음력 칠석날 태어났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할머니가 보이시는데 그럴 때마다 오색 깃발을 줍니다. 저는 의상 일을 하고 있으며 작은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월급 주며 무리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안해서인지 언젠가부터 속세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듭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제게 주는 오색 깃발도 자꾸 맘에 걸립니다. 왜 자꾸 오색 깃발을 주시는 걸까요? 얼마 전 꿈에서 오색기를 흔는 꿈을 꾸었습니다.

A 오색 깃발은 다섯 방위(方位)를 관장하여 지키는 수호신 오방신(五方神) 오방장군(五方將軍)을 의미합니다. 오방을 색깔과 오행에 대유하면 동(東) 청(靑)-목(木) 서(西)-백(白)-금(金) 남(南)-적(赤)-화(火) 북(北)-흑(黑)-수(水) 중(中) 황(黃)-토(土)를 말합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출타할 제나 이사 이장 제례 등의 행사에 길한 방위를 잡아 택일하는 것도 방위신의 일체를 구하는 의(義)의 원리에 의한 속신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나 농촌에서 방위에 따라 대문을 내는 것도 방위 신에게 재액(災厄)을 피하고 복록(福祿)을 기원하는 신앙 풍위이며 굿을 하거나 치성을 드릴 때 무기에서 오지니 오방신장이 하는 말이 많이 나오므로 길몽입니다. 년월일지(年月日支)에 귀문살(鬼門煞)을 보이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옵지만 사실은 꿈을 꾼 귀하의 자아가 조상으로 현신 된 것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무속인 이셨다면 더더군다나 귀하의 일에 도움 줄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가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실행해도 날전되는 결과를 미리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할머님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시면 귀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신묘(辛卯)년 7월생에 현침살(懸針煞)로 의류일은 성공할 수 있으므로 만족한 직업을 갖은 셈이니 행복한 삶이 됩니다. 예민하고 신금(辛金)사주가 배우자 궁에 절지(絶地) 단절됨)를 두고 있으며 무관(無官) 남편을 나타내는 것이 없음)사주로 독수공방을 암시하는데 결혼한다면 이재에 밝아 돈을 벌지만 남편에게 희생하고 본인을 위해서는 한 푼도 못쓰게 되는 운으로 결혼시기에 임은 참고 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1일(음 9월 28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뜻밖의 공돈이 생긴다. 60년생 배우자의 소선한 제안에 오 해피~. 72년생 애매한 태도는 오해를 부른다. 84년생 집단적 인신공격당하지 않도록 조심~

소 49년생 자잘한 굽은 아랫사람에 맡겨라. 61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듣는다. 73년생 뜻을 이루려면 실수 하나쯤 넘기자 굴라. 85년생 머리 지끈하게 한 고민은 해결된다.

호랑이 50년생 작은 것이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온다. 62년생 신상의 변화를 즐겨라. 74년생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더 어려워진다. 86년생 동료와 다투지 않도록 조심~

토끼 51년생 술시에 휘말리지 않도록~ 63년생 적정한 굽은 잘 풀려나간다. 75년생 보여주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보여주라. 87년생 소신을 굽히더라도 변할 것은 안이게 한다.

용 52년생 공들인 굽이 뒷전이 된다. 64년생 아랫사람에 진심은 숨기지 말라. 76년생 엇박자 치는 배우자가 야속하다. 88년생 막혔던 일은 숨통이 트인다.

뱀 53년생 자만보다는 신중한 판단할 것. 65년생 어색한 만남에 덕담만 오간다. 77년생 화담한 주장은 한귀로 듣고 그냥 흘려라. 89년생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

말 42년생 두 갈래 이웃 때문에 괴롭다. 54년생 꿈도 나이에 맞춰 꾸어라. 66년생 직장인은 러브콜을 받고 고민이 깊어진다. 78년생 기회는 오니 끝까지 포기 말라.

양 43년생 긍정 마인드로 희망 살리라. 55년생 걱정된 굽은 조언구하면 풀린다. 67년생 고심함을 굽지 않도록 할 것. 79년생 마음먹고 추진한 일은 탄력 붙는다.

원숭이 44년생 권목 발휘할 기회가 온다. 56년생 떠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히 떠나라. 68년생 망설이다간 모두 다 놓친다. 80년생 너무 신중하면 되레 늦기 될 수도.

닭 45년생 흙집 내기 싸움은 피하는 게 상책~ 57년생 가족일 들으면 지다가 탈이 생긴다. 69년생 사랑도 욕망도 한 순간이니 마음 비워라. 81년생 원하는 답은 얻는다.

개 46년생 문서일은 서둘러야 한다. 58년생 변대 싫은 굽은 재검토하라. 70년생 작은 성과에 요란 떨면 소탐대실한다. 82년생 친구 일에 개입할 땐 신중할 것.

돼지 47년생 서두가 길면 잔소리가 됨~ 59년생 너무 높이 보면 자신만 초라해진다. 71년생 못마땅해도 주변의 충고 따르라. 83년생 욕심을 부리면 무리수가 따른다.

"부담감 줄어든다" vs "나쁘지 않다"

NC-LG 프로야구 준PO 2차전 우천 취소…5전 3선승제 경기 하루씩 밀려

김경문 NC 감독

양상문 LG 감독

2014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준플레이오프 2차전이 비로 하루 연기됐다.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경기가 우천 취소되며 5전 3선승제 준PO 일정이 하루씩 밀렸다. 이로써 2차전은 21일 오후 6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치러진다. 선발투수는 이날 등판 예정이었던 NC의 찰리 쉬렉과 LG 코리 리오단이 그대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전 3선승제 일정에서 경기가 5차전까지 가게 된다면 넥센 히어로즈와의 플레이오프 일정도 조정이 필요해진다. 만약 준PO가 5차전까지 가지 않는다면 플레이오프는 예정대로 27일 시작한다.

이날 창원 지역에는 온종일 비가 오락가락했다. 경기시작 전 빗줄기가 약해지나 싶더니 경기가 임박하며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다. 감독관은 예정된 개시 시각보다 15분을 더 기다려봤지만 비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자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어느 팀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렸다. 일단 예상치 못한 하루 휴식은 양팀 모두에게 희소식이다.

NC의 입장에선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 전날 선발 이재학이 1이닝도 버티지 못한 채 강판되고 테드 웨버가 4이닝 넘게 던지며 두 명의 선발 카드를 소모했기 때문이다. 이날 휴식으로 웨버가 4차전에서 선발로도 나올 수 있고 불펜 조로 다시 출격하는 등의 용병술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전날 완패의 충격을 씻어내고 재정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이 크게 다가온다.

경기 순연이 선언되자 김경문 NC 감독은 "경험을 비춰봤을 때 팀의 분위기가 어두울 때 비가 와서 경기가 순연되면 선수들의 부담감이 줄어든다"며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 부담을 가졌을 텐데 하루 쉬면서 내일 경기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선수들이 정규시즌에 잘해왔으니까 1패에 너무 주눅 들지 말고 1승을 하면 분위기 전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LG는 정규리그 막바지까지 SK와 치열한 4위 다툼을 벌이느라 여유있는 준플레이오프 준비가 어려웠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하루 휴식 시간을 벌면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시리즈 운용을 조율할 기회를 얻었다.

특히 1차전에서 뜻밖의 호투로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강판된 류제국의 다음 등판과 투수 운용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불펜 신정락의 활용 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구상이 가능해졌다. 다만 1차전에서 13-4로 대승을 거둔 직후 상승 곡선의 팀 분위기가 끊긴다는 점은 아쉬울 수 있다.

양상문 LG 감독은 이날 "어제 좋은 분위기에서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경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전반적인 야구 정서를 보면 득점과 안타를 많이 기록한 다음 날에 침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우천 취소를 반겼다.

양 감독은 또 "그동안 심리적으로 피곤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쉬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학철기자 kimc@metroseoul.co.kr

윤석영, EPL 데뷔전 맹활약

소속팀 QPR은 자책골 2개로 리버풀에 석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퀸즈파크레인저스(QPR)에서 뛰고 있는 윤석영(24)이 1년 8개월 만에 데뷔전을 치렀다.

윤석영은 19일(한국시간) 잉글랜드 런던의 로프터스 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14~2015 EPL 8라운드 홈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K리그 전남드래곤즈에서 활약하던 윤석영은 지난해 2월 QPR로 이적했지만 당시 팀은 정규리그 최하위를 기록해 2부 리그(챔피언십)로 강등됐다. 이적 후 첫 시즌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윤석영은 2013~2014시즌 2부 리그에서 조금씩 유럽 축구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돈캐스터 로버스에서 단기 임대 생활을 한 뒤 QPR로 돌아와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팀의 1부 리그 복귀에 최선을 다했다.

팀은 승격했지만 윤석영은 새로운 주전 경쟁을 해야만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여름 발목 부상을 당한 윤석영은 올 시즌 초반 단 한 차례도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이날 경기는 윤석영이 잉글랜드 입성 20개월 만에 치른 1부 리그 정규경기였던 셈이다.

윤석영은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아르망 트라오레를 대신해 왼쪽 측면으로 선발 출전했다.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로 리버풀 공격수들의 슈팅을 수차례 걷어냈고 수비지역에서 보여주는 볼 관리 능력도 일품이었다. 홈팬들은 뜨거운 함성을 보내는 등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다.

QPR은 윤석영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리버풀과 혈투 끝에 2-3으로 석패했다. 전반전 내내 리버풀을 압도하며 후반전을 맞은 QPR은 후반 22분 리차드 던의 자책골로 선제골을 내줬다. 후반 42분 에두아르도 바르가스가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리버풀은 후반 45분 필리페 쿠티뉴의 득점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추가시간 5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됐으나 QPR에게는 악몽의 시간이었다.

QPR의 수비수 윤석영이 19일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AP뉴시스

후반 47분 바르가스가 두 번째 동점골을 뽑아내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지으려고 했지만 QPR의 수비수 스티븐 코커가 또다시 자책골을 기록하며 리버풀에 승리를 헌납했다. 한 경기 두 개의 자책골을 기록한 QPR(1승1무6패·승점 4)은 20위에 머물렀고 리버풀(4승1무3패·승점 13)은 5위로 뛰어올랐다. /김학철기자

프로농구 전적 20일

삼성	20	16	21	22	79
전자랜드	27	20	20	18	85

프로배구 전적 20일

LIG손해보험	1	3	한국전력

선동열 재신임과 변화의 리더십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프로야구 감독은 해임도 가혹하다. 성적을 내는 감독들은 명장의 찬사를 받지만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감독들은 비난과 조롱까지 받으며 자리에서 물러난다. 실제로 이번 시즌을 마치고 4강에 실패한 김응용 한화감독과 김시진 롯데 감독, 이만수 SK 감독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3년 동안 5위-8위-8위로 부진했던 선동열 KIA 감독은 이례적으로 2년 재신임 대우를 받았다. 국보투수라는 이름값 때문이다. 교체를 생각했던 타이거즈 팬들이 반발하고 있다. 3년 연속 4강에 들지 못한 감독이 유임되는 경우는 처음이니 팬들의 반발은 당연할 수 있다.

선 감독은 삼성에서 성공했으나 KIA에서 3년은 실패했다. 감독으로서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선수의 능력 차이로 해석할 수 있지만 리더십도 달라졌다. 삼성시절은 비전과 뚜렷한 전략이 있었지만 KIA에서는 성공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선 감독은 어렵게 재신임을 받아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주변은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다. 양현종 김선빈, 안치홍 등 주전들이 빠진다. 리빌딩을 위한 마땅한 안목들도 많지 않다. 3년의 실패로 인해 선동열 특유의 카리스마도 색이 바랬다. 벼랑 끝에서 새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람은 위기에 몰리면 달라진다. 결국은 변화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선 감독이 스스로 바꾸어야 한다. 무엇보다 선수들과의 교감이 중요하다.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여 한 곳으로 모으고 죽을 힘을 다하도록 이끄는 리더십이 요체이다. 과연 선동열 감독은 변할까? 아마도 그것이 그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OSEN 기자